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nnual Bulletin No. 106



虎商

만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국토부 허가 취득

AUTONOMOUS
DRIVING Mando

자율주행, 그 이상의 기술 Drive with Technology Mando

만도는 '안전'에 있어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우선으로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동차,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자동차,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첨단 편의기능을 갖춘 꿈의 자동차 기술을 생각합니다.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다



원격 전자동 주차 시스템(RSPA)
스마트폰으로 주차를 간편하게



고속도로주행지원 시스템(HDA)
고속도로에서 편안한 드라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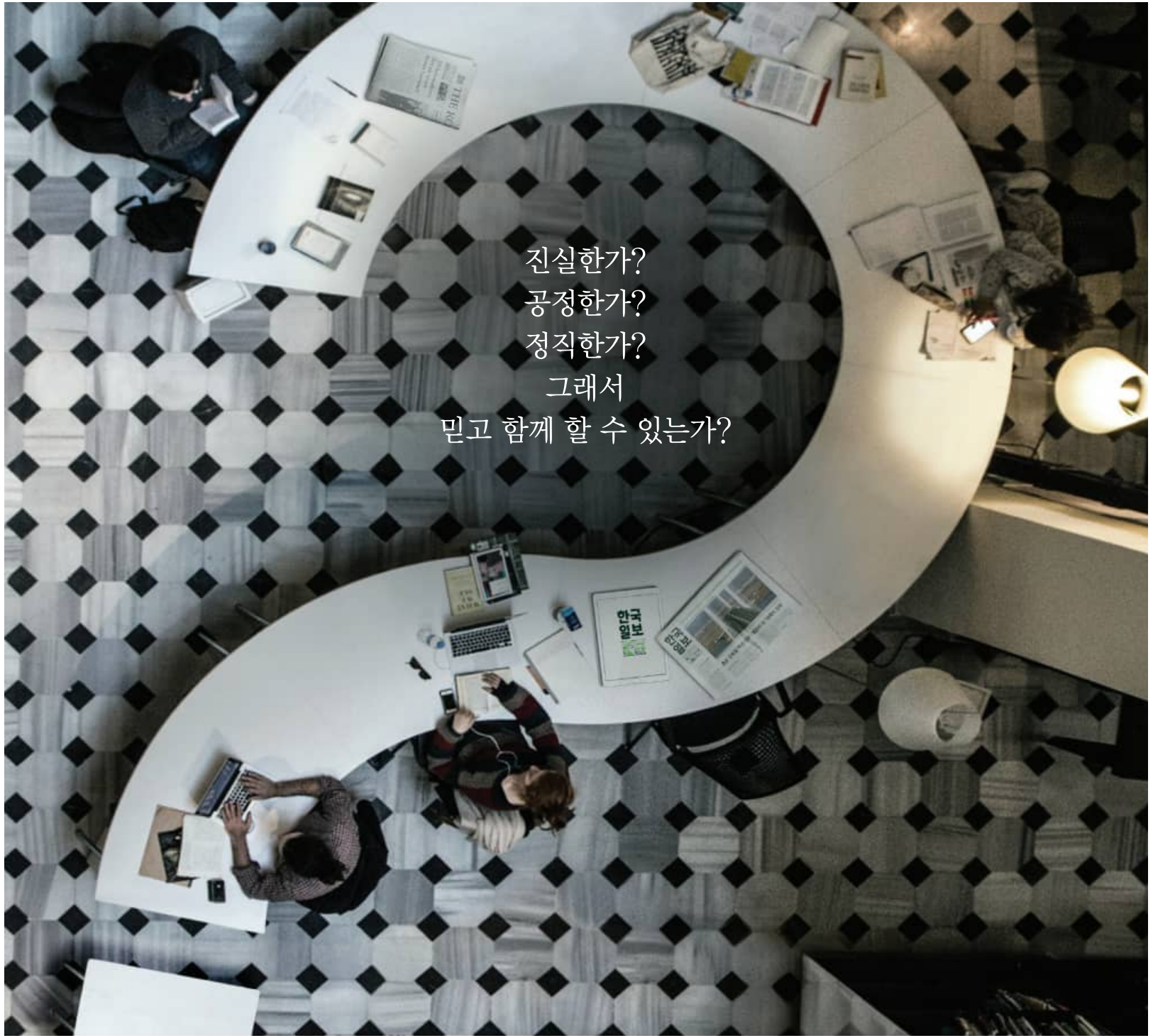
교차로 사고 예방 시스템(CTA)
교차로에서 안전한 주행



주식회사 만도

436-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Tel : 02. 6244. 2114 Fax : 02. 6244. 2997 www.mando.com

한라그룹 회장 정몽원 (경영74)



진실한가?
공정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믿고 함께 할 수 있는가?

한국일보는
냉철한 지성과 깊은 이해로
바른 해답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겠습니다

답이 되는 신문



동화그룹 한국일보 회장 승명호 (무역74)



감사합니다

Anytime
Anywhere
I will take you!



M&M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

www.mmcorp.com



오아한 안마기

피곤한 일상을 달래줄
오아만의 인체공학적 신개념 마사지기



무선 넥앤숄더

Neck & Shoulder

3D 롤러 탑재,
손 주무름 방식을 그대로



무릎 마사지기

Knee Massager

온열, 원적외선 진동,
공기압 마사지를 한번에



아이프로 눈마사지기

Eye pro Massager

하루 15분으로 눈의
피로를 풀고 숙면 효과까지

오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무 (무역93)



TAIHE

CHINESE FINE DINING

60년 전통의 태화관(泰和館)의 부활 특급호텔 셰프의 만남 타이허(泰和)



60년전, 의정부에서 개업한 태화관(泰和館)이 40년 경력의 특급호텔 출신 대가와 만나
2017년 11월 1일 강남 역삼동에서 "타이허(泰和)" 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중국 본토 최고의 맛과 감성이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타이허(泰和)"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편안하고 품격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대가의 자부심을 담아 최고의 식재료만을 엄선하여 완성되는
정통 중식의 향연을 "타이허(泰和)"에서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장정보 | Restaurant Information

영업시간 11:30 ~ 15:00 / 저녁 17:30 ~ 22:00

전화번호 02-508-3800 (B2, 80석 단체석 완비, 발렛파킹 가능)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1, 태화빌딩 B1, B2 (역삼동 628-8)

대중교통 | Public Transportation

지 하 철 2호선 역삼역 6번출구 또는 9호선 언주역 7번 출구 (도보 5분)

버 스 147번, 463번, 4211번, 9600번

타이허 대표이사 장치평 (경영79)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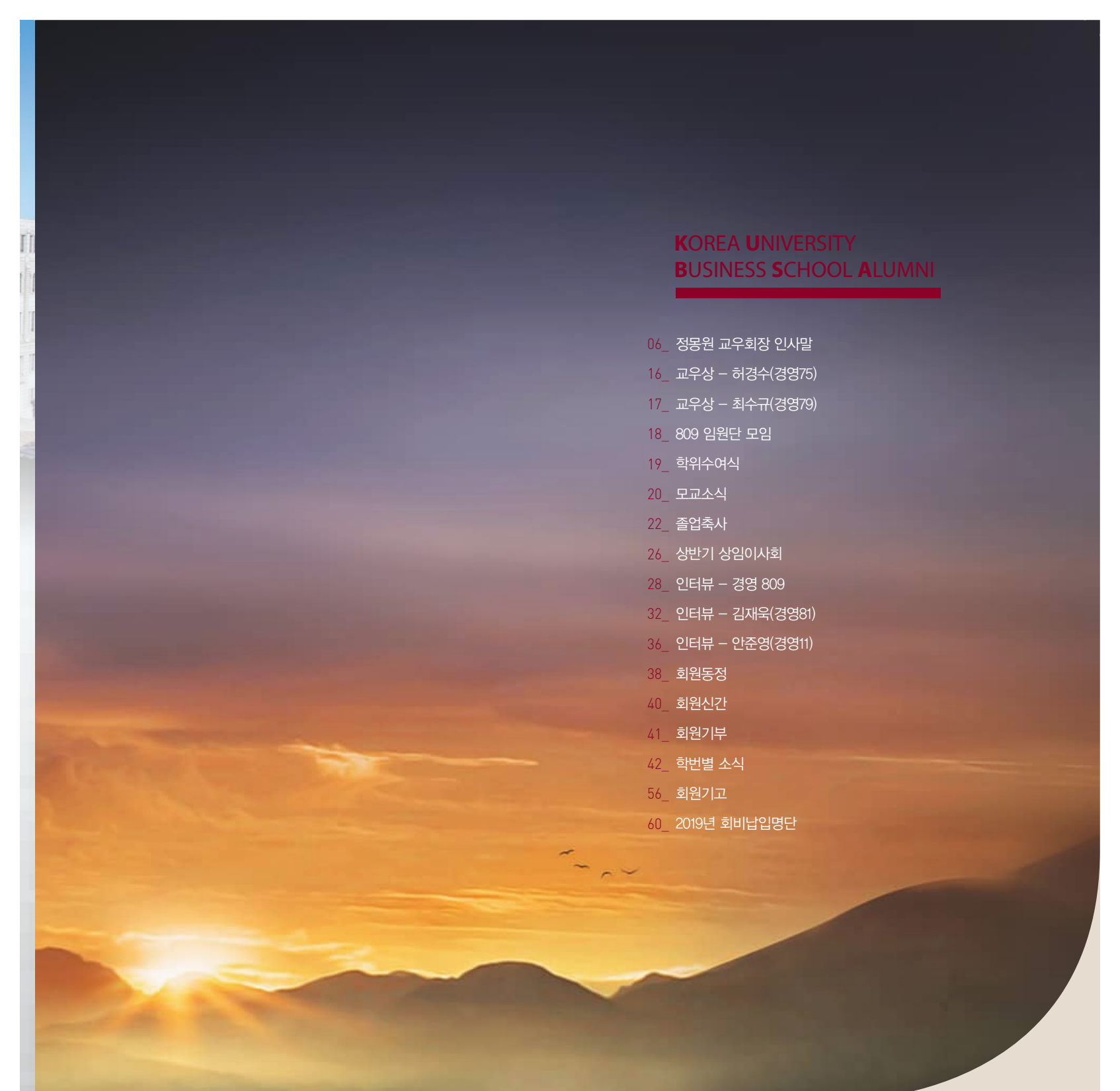


코스모 대표이사 회장 허경수 (경영75)

2019년 경영대학 교우회 주요 행사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행사명	장소
4월 27일(토) 09:00	제9회 걷기대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5월 10일(금)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아시안라이브
5월 말	제1학기 장학증서수여식	L-P경영관
5월 17일(금) 12시경	골프대회(전교우)	여주 세라지오CC
6월 15일(토) 08:00	909, 009, KUBS Ladies 야유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6월 말	야구부 후원금 전달	송추운동장
9월 21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참살이길
10월 10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파크하얏트 코너스톤
10월 24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타이허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수여식	L-P경영관
12월 5일(목) 18:20	제39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F)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6_ 정몽원 교우회장 인사말
- 16_ 교우상 - 허경수(경영75)
- 17_ 교우상 - 최수규(경영79)
- 18_ 809 임원단 모임
- 19_ 학위수여식
- 20_ 모교소식
- 22_ 졸업축사
- 26_ 상반기 상임이사회
- 28_ 인터뷰 - 경영 809
- 32_ 인터뷰 - 김재욱(경영81)
- 36_ 인터뷰 - 안준영(경영11)
- 38_ 회원동정
- 40_ 회원신간
- 41_ 회원기부
- 42_ 학년별 소식
- 56_ 회원기고
- 60_ 2019년 회비납입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19 통권 제106호 Vol.29

발행일 2019년 3월 31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정몽원
편집인 구자형, 오성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136-7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가격 3,000원

교우회장 인사말

지난 2018년 경영대학 교우회는 젊은 교우들 및 여교우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걷기대회, 골프대회, 고연전 뒤풀이축제, 교우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교우님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였으며, 교우님들의 다양한 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영대학에 기쁜 소식도 많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114명의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여 3년 연속 압도적 1위를 유지하였으며, FT, UTD,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U.S. News & World Report 등의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에서도 탁월하게 높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도 「미래로 함께 가는 교우회」라는 슬로건으로 젊은 교우들을 비롯하여 선배교우님들, 각 분야의 Opinion Leader 교우님들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우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Fundamentals)을 강화하여, 지속 발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경영대교우회의 활성화와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우님들의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8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에서 제 38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원(경영74)경영대학 교우회장, 김인(경영68)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 김재욱(경영81)경영대학장, 김종양(경영81)인터폴 총재를 비롯한 원로교수, 재직교수, 그리고 경영대학이 배출한 사회 저명인사와 650여명의 경영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 38회 고려대학교

교우의 밤

일시 2018.12.6(목) 18:20

장소 그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정몽원 경영대학 교우회장은 인사말로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경영대학 교우의 밤’은 여러 단과대학 ‘교우의 밤’의 효시가 된 모범적인 행사가 되었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점차 위기를 맞고 있다.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고, 모교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학수(상65)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을 대신해, 김인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이 축사로 “‘경영대학 교우의 밤’은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훌륭한 전통의 송년행사이며, 모교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경영대학 교우들의 협조에 감사 한다”고 전했다.

해외 일정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 하지 못한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축하 영상으로 함께 했다.

김재욱 경영대학장의 학사보고 및 경영대학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력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재욱 학장은 “모교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은 교우들의 응원과 성원을 부탁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년도 행사주최기수인 93학번에서는 103,560,000원의 장

학금을 기탁하였으며, 전년도 행사를 주관하며 경영대학 장학기금 90,000,000원을 기탁한 92학번 동기회(회장 최강근)에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한편 ‘올해의 교우상’ 시상에는 우리나라 대외적인 활동과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산업, 사회 발전에 기여한 허경수(경영75) 코스모그룹 대표이사 회장, 최수규(경영79)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수



상하였다. 또한 80년대 각 학번 동기회 임원단 모임인 '경영809' 모임(초대회장 이선용(경영80), 2대회장 조한홍(경영81), 3대회장 박수근(경영81), 4대회장 여용동(경영82))은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교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한 해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우 37인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2부 행사는 명예교수의 건배제의를 시작으로 공연과 만찬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호섭(경영85)교우의 성악 공연과 유용창(경영85)교우의 가족밴드 U Square의 공연, 그리고 마술공연이 이어져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를 풍성하게 꾸몄으며 고려대학교 응원단의 응원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찬조명단

격조 높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번	학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찬조내역
1	53	이윤재	(주)피존 회장	피존 리치퍼품 시그니처 1.35L 700개, 건조기용 시트 1종씩 700개
2	55	유상옥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코리아나 화장품 10세트
3	57	이상일	(주)일진글로벌 회장	LG TROMM 스타일러 2대
4	57	이양섭	(주)엠에스오토텍 회장	담배 김치냉장고 1대
5	59	정장호	마루사 회장	현금 30만원
6	61	엄종일	(주)럭스산업개발 회장	생활용품 세트 30개
7	65	이학수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삼성전자 UHD 43인치 TV 1대
8	65	허광수	(주)삼양인태내셔널 회장	핑퍼터 3개
9	66	김영환	(주)벽제외식산업개발 회장	봉피양 식사권 10만원권 5매, 벽제갈비 식사권 30만원권 2매
10	66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	포켓용수첩 700개
11	66	황병조	남성산업(주) 회장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12	67	허창수	GS그룹 회장	제주 엘리시안 4인 VIP초대권 (무료골프 및 1박 숙박권) 2매
13	68	김 인	삼성SDS(주) 고문 /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	현금 50만원
14	69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대표이사 회장	현금 1,000만원
15	69	최상영	영스틸 대표이사	백화점 상품권 500만원
16	69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GS칼텍스 주유권 200만원
17	70	구본능	화성그룹 회장	현금 100만원
18	70	나원배	GS에너지 부회장	GS상품권 100만원
19	70	이재동	(주)전인CM 회장/삼성KPMG 고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20	71	박문덕	하이트진로(주) 회장	맥주360병, 소주400병
21	72	구자열	LS그룹 회장	몽벨 발수 다운자켓 5벌
22	72	김 윤	(주)삼양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LG전자 LED 43인치 TV 1대
23	72	허진수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회장	광고 협찬 200만원
24	73	정기련	(주)보락 대표이사	현금 200만원
25	74		경영 74학번	상품권 100만원
26	74	강호갑	한국증권기업연합회 회장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27	74	송명호	동화그룹 한국일보 회장	동화마루시공권 2매
28	74	유시호	원일건설 회장	현금 50만원
29	74	윤명상	성주디앤디 대표이사	MCM 남성 반지갑 5개
30	74	이흥기	현대경영연구원장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31	74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광고 협찬 300만원, 만도 Footloose EM 전기자전거 2대(600만원 상당)
32	74	한호석	정탐산업(주) 대표이사	백화점상품권 100만원
33	75	안영일	(주)신동해홀딩스 회장	평창 리조트 10만원권 20매
34	75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코오롱 상품권 10만원권 20매
35	75	허경수	코스모 대표이사 회장	다이스 무선핸디청소기V8 2대, 다이스 슈퍼소닉핑크 드라이기 2대
36	78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광고 협찬 300만원
37	78	이은우	포즈컴퍼니(주) 대표이사 / (주)우리솔 부사장	막걸리 230병
38	79	장치평	(주)아스트로너지솔라코리아 회장	종식당 타이허 식사권 10만원권 10매
39	80	이선용	베어트리파크 대표	송파 진녹용 대보탕 10BOX (BOX당 30포)
40	80	정몽규	현대산업개발(주) 회장	정선 파크로쉬 숙박 SUITE객실 3매
41	81	박수근	(주)알머스글로벌 대표이사	서울살롱 RX10 밸런싱 로션 100ml 80개
42	81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두산 두타상품권 200만원
43	81	이충진	ALGOVITAL KOREA 대표	알고비탈 화장품 앤젤 에센스 10개
44	85	신호섭	(주)아성다이소 대표이사	현금 50만원
45	88	구분학	쿠쿠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쿠쿠 IH전기압력밥솥 2대
46	89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현금 250만원
47	89	김평국	(주)디유넷 대표이사	탄산수 : 보르섹 750ml 120병, 보르섹 330ml 4개 세트 30개, 보르섹330ml 120개, 하트시그널마스크팩 2종 20세트
48	90	형윤준	(주)일신국제무역 대표	리콜라 캔디 1000개, 콘멜로우 1000개
49	90	최창규	(주)나무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50	93	김상무	오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보아르 루이스 가슴기 10개, 오아 사운드앤라이트 10개
51	93	이정훈	(주)웅진플레이도시 대표이사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초대권 100매
52	93	이영권	빅프록트코리아 대표이사	볼펜 1500개(300만원 상당)
53	05	송공석	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백화점상품권 30만원
54	간호73	최윤희	여교우회 회장	파우치 3중세트 30개
55		전이현	MBA교우회 회장	현금 100만원
56	81	김재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019년도 고려대학교 달력 700부
57		권봉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호텔 대표이사	Junior Suite 1박 숙박권(조식포함) 1장, Grand Kitchen 2인 식사권 3장

* 경영대학 교우회에서는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을 위해 고급와인 1병을 준비하였습니다.



코스모 그룹 대표이사 회장

허경수 교우 (75학번)



허경수 교우는 경영대학 75학번으로서, 1981년부터 17년간 LG 그룹에서 LG상사 및 LG전자 해외법인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코스모그룹을 맡아 마루망코리아 합작법인 설립, 코스모화학 및 코스모신소재 인수 등을 통해 그룹의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

‘책임경영’, ‘가치경영’, ‘열린경영’을 지향하는 코스모그룹을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힘써 왔고,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상장사인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신소재는 2017년 년초 대비 연말 전체 유가증권상장사 중 수배에 상응하는 등 주가 상승률 1위와 5위를 각각 차지했고, 2018년 10월 현재도 주가 상승률면에서 타기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허경수 교우가 이차전지 및 전기차 등 미래의 성장동력 사업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벌인 결과 중 하나다. 허 교우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계열사들의 실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그룹 내 중복되는 사업부문을 통합해 각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 위기탈출 경영을 효과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코스모앤컴퍼니의 경우 내실 경영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이슨(Dyson), 블루에어(Blue air) 등 전기가전 분야에서무선청소기, 청정기 등 시장을 선도하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고객의 Needs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2017년 4,079억 매출을 달성함으로써 2015년의 1,248억 매출의 3배 이상의 신장을 기록함과 동시에 동기대비 영업이익에서도 10배 이상의 신

장을 이루어내는 등 획기적인 양적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하고 있다.

상장사인 코스모신소재는 양극활물질(LCO, NCM)과 MLCC용 이형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허교우는 과감한 체질개선으로 기존의 필름 사업 등 사양사업을 정리하고 고부가가치의 이차전지나 이형필름 등의 사업에 주안점을 둔 결과, 오랜 적자를 마감하고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코스모신소재의 매출액이 전분기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매출 최고실적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시장을 고려해 기존의 LCO만이 아닌 NCM을 과감해 채용하는 등 효과적인 시장 대응 전략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고용량 적층세라믹 콘덴서(MLCC) 제조에 사용되는 이형필름은 MLCC 수요와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의 투자도 과감히 전개해 생산용량을 늘리는 등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다른 상장사인 코스모화학은 백색안료인 이산화티타늄은 양산하는 기업이다. 허 교우는 경기침체 및 중국의 이산화티타늄 공급과잉 이슈로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기에 인천공장을 매각을 통해 인천과 온산으로 나눠진 공장라인을 온산공장으로 집적화 시키는 등 강도높은 내부구조조정과 경영을 펼친 바 있다. 코스모화학은 배터리·전구체 업체의 증설이라는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황산코발트 플랜트의 가동률을 다시 높여 2018년 현재 매출에 상당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메이저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와 협업을 진행해 제품 등급 다양화 노력을 하는 등 경영난 극복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수규 교우
(79학번)



최수규 교우는 경영학과 79학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최 교우는 행정고시 30회로 1987년 중소기업청 전신인 공업진흥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최 교우는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 중소기업청 차장 등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섭렵하였다. 그는 2017년 2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일하다가, 그해 7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차관으로 부임하였다.

최 교우는 30여년 중소기업 육성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소기업정책 전문가이다. 중소기업청 판로과장 시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처음 시도하였고, 중소기업비서관으로 재직 때는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주도하는 등 중소기업 역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중소기업청 시절 축구동호회 회장을 맡기도 한 최 교우는 직원들과 격의없이 어울리고 직원들의 대소사를 직접 챙길만큼 세심하여 따뜻한 상사로 평판이 나있다. 리더십이 강하고 업무 추

진력도 좋아 중기부 직원들이 가장 닳고 싶은 선배로 꼽는다. 최 교우의 삶과 궤적을 같이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는 단호히 엄단하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정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도 도입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매출증대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벤처투자가 지난해보다 46%나 증가하는 등 벤처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상생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미래성장산업이 지역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각 학번 임원단 모임

초대 회장 80학번 이선용 (2010~2014)

2대 회장 81학번 조한홍 (2015)

3대 회장 81학번 박수근 (2016~2018)

4대 회장 82학번 여용동 (2019~현재)

경영대 809는 80학번부터 89학번까지 80년대 경영대학 각 학번 동기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 학번 임원단 모임으로 성격을 규정하여, 80년대 모교생활을 함께 한 가까운 학번간의 유대를 강화 하고, 모교의 발전과 교우회 활동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0년에 창립되었다. 창립 이후, 각 학번 임원단이 계속 바뀌는 동기회 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확대하였고, 교우회 활동에 관심 있는 경영대 출신 모두에게까지 개방하여 지금은 정회원 109명, 명예회원 100여명 총 209명의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809 정회원 109명중에는 경영대 교우회 감사 2명, 여교우회 회

장 1명, 교우회 부회장 8명, 상임 이사와 이사가 48명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809회원이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809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809장학금, 고연전 참살이길 행사, 멘토멘티 활동 등으로 재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809회원의 상호발전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골프행사, 등산 행사, 오찬행사, 송년행사 등의 정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단한 유대 관계를 기본으로 한 적극적인 교우회 참여가 경영대 여교우회와 909라는 확장적 개념의 경영대 모임탄생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첫 발...

제112회 경영대학(원) 학위수여식

제112회 경영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월 25일(월) 인촌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욱 학장, 어윤대 전 총장을 비롯한 경영대학 교수진이 참석했다. 학위수여식의 주인공인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학사모와 졸업 가운 차림으로 인촌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2018학년도 전기 및 후기 통틀어서 △학부 △석·박사 △Korea MBA(이하 K-MBA) △Executive MBA(이하 E-MBA) △S³ Asia MBA(이하 A-MBA) △Global MBA(이하 G-MBA) 졸업생은 총 917명이다.

김재욱 학장은 졸업식사에서 “어려운 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졸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오늘 학위수여식은 더 멋진 미래를 향한 글로벌 리더로서 첫 발을 내딛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발전을 멈추지 않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도 전했다. 다음으로 어윤대 전 총장의 졸업축사가 이어졌다. 어 전 총장은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길은 장밋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길 바란다”라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우수 졸업생 시상이 이뤄졌다. 총장상은 △학부 손다솔 학생 △K-MBA 이미경 원우가 수상했다. 원장상은 △K-MBA 신우경 원우 △E-MBA 한아름 원우 △A-MBA GUPTA AASHINA 원우에게 돌아갔다. 이후 전체 졸업생에 대한 학위기 수여가 진행됐으며 학위기는 김재욱 학장이 직접 수여했다. 이어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는 졸업 축하 세레머니와 교가 제창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 학위 수여자는 △학사 508명 △석사 55명 △박사 13명 △K-MBA 265명 △E-MBA 53명 △A-MBA 16명 △G-MBA 7명이다.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 정진택 박사 취임식 열려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매년 많은 신입생들이 캠퍼스를 찾아온다.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너무 다를 것이다. 이들이 다가올 시대를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길러낼 책무를 우리 대학은 지고 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고대 교육의 변화를 강조한 신임 총장의 비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신임 총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임명사를 시작했다. 김재호 이사장은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전념해달라. 대학은 창의와 혁신의 모체가 되어 새로운 시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진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창의성과 협업,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발전을 위해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줄 것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줄 것도 당부하며 고대 구성원들은 그것을 이룰 역량과 열망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로 모일 때 고려대의 발전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이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정진택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혼란과 격변이 이어지고 있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그야말로 격랑의 한복판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언제나 혼미한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고 불확실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의 등불이 되어왔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미래를 향해 용기를 내야할 때”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을 제안하며 실현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째로 정진택 총장은 ‘창의고대(創意高代)’의 가치를 높이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은 모름지기 시대를 선도하는 학문적 가치와 인류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세우는 곳이다. 새로운 가치는 창의(創意)에서 나온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기법을 개발하기 보다는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에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추종형 모델로서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이론과 원리를 앞장서 개발해내야만 생존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대의 캠퍼스 문화를 창의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이다. 교과과정에서부터 강의와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학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 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정진택 총장은 통합과 통섭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 편과 네 편을 따지는 편협한 자세가 아닌 초 연결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전공을 넘나드는 다양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월 28일(목) 오전 11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 정진택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 교육과 입체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는 실용적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고려대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은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뿌리이기도 하다며 "사회 공헌 교육과 체험을 통해 나눔과 봉사라는 가치가 학생들에게 가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학문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계가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고, 기계 문명의 일탈방지와 선한 사용을 위해서도 도덕적 인재의 양성은 우리 인류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넷째로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ICT 환경의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조직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 고려대에는 참으로 많은 인재들이 있다. 구성원 모두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마음껏 발현되고 구성원 모두의 가치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사람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할 것이다. 또 그 성과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행정과 사람중심의 교육을 구현해 나가겠다. 열린 소통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며 114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난 것처럼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인 고려대 교우회 수석부회장은 "신임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 114년 역사상 최

초의 공과대학 출신이다.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구성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신임 총장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통찰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으로의 발전을 약속하셨다. 이와 함께 '사람중심, 열린 소통, 자율행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데이터 기반 리더십으로 미래형 캠퍼스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우리 교우들은 신임 총장께서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후배들이 창의적 미래 인재로서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인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 홍일식 전 총장, 김정배 전 총장, 어윤대 전 총장, 이필상 전 총장, 이기수 전 총장, 김병철 전 총장, 염재호 전 총장, 조옥환 대학평의회 의장,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David Dolling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전 공대학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정진택 신임 총장은 1983년 고려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공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 대외협력처장, 공학대학원장, 공과대학장,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한국유체기계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12월 20일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2019 졸업 축하



魚允大
제 15대 모교총장
제 4, 5대 국민경제 자문위원회 부의장

2019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축사

졸업(commencement)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나아가 아시아 최고 명문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의 앞길은 장미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영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론과 실천을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다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인재들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World University Ranking 2019'의 경영·경제 분야에서 3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11위, 세계 9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ecutive MBA는 영국 Financial Times에서 세계 3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재임했던 2004년부터 영어강의(외국어강의)를 시작해서 현재 경영대학 강의의 70%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국제적인 의사전달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열정 없이 어떤 큰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단 경영대학 졸업생 뿐 아니라 모든 고대생은 열정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은 조직체 생활을 영위하거나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장점이 됩니다. 고대졸업생이 가진 열정이 캠퍼스 생활과정에서 생기는 것인지 이러한 훌륭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고대를 선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고대졸업생으로 자랑스러운 특징입니다.

한국은 GNP나 무역규모에서 선진국입니다. 1인당 GNP 3만불이

넘고 5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 7번째입니다.

앞서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뿐입니다. 잠시 제가 졸업한 1967년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1인당 국민 소득이 150불에 불과했습니다. 외화보유고는 바닥이었고 1971년에 와서야 6억불이 되었습니다. 각각 지금의 0.5%, 0.1% 수준입니다.

1967년 고대 전체 졸업생 915명 중 여성은 5%인 4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경영대학 졸업생중 여성은 192명으로 그 당시 대학교 전체 여성 졸업생의 4배나 됩니다. 저성장 늪으로 빠지기 시작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여성 사회진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직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힘들고 승진이 힘든 글라스 실링(glass ceiling)이 있긴 합니다. 여성교수들도 같은 조건입니다. 제가 졸업할 땐 상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선 여성교수가 한 분도 없었고 일반은행에는 여성이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성대통령이 나왔고, 최근 대형 증권회사 CEO도 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행정을 맡고 있을 때 고대에서도 사회학과 여성교수가 최초로 학생처장으로 교무위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급변한 국가입니다. 국가는 선진국이 되었고 국민은 부자가 되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도 개방화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무장한 고대 남녀 졸업생들이 세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은 무한정합니다.

그런데 싸움터에는 더 혁명적인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인간기대 수명의 연장, 중국의 부상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AI와 로봇 산업의 발달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인 직업은 변할 뿐만 아니라 직업자체가 없어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지식의 향속성도 짝아서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은 바로 도태되고 바뀝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10년 이상 지속 될 지식이 현재는 2~3년 내에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배운 것은 단지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묻고 습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끊임없이 정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정진해야 됩니다. 변화 없는 인도에서 Modi총리가 '1억 개 화장실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무, 회계 등 분석적인 기술은 조금 오래가겠지만 Big data 분석, AI 등 전산학과나 통계학과의 필수과목이 경영대학에 접목될 것입니다. 회계, 재무전공 교수님들은 그래도 건널만하겠지만 국제경영, 마케팅 교수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전공이란 개념도 적어지고 모든 학문이 융합됩니다. 얼마 전 기업체에서 하는 최고위 과정에 참석했는데 유명한 철학교수가 인사관리를 강의하고 계시더군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2017년부터 MBA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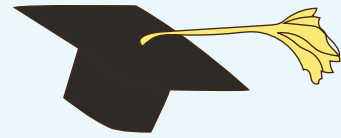
에 엔지니어링을 합친 2중 전공이 이미 생겨났습니다. 고대 경영대학도 본받아야 되겠지요.

평균 기대수명 100세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대학 졸업 후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소위 평생직장시대(life-long employment system)는 끝났습니다. 2모작뿐만 아니라 4모작, 5모작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연관된 직종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상이한 전문 직종으로도 옮겨갈 것입니다. 한 직종의 전문지식 필요성 못지않게 다른 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영·경제뿐만 아니라 공학, 인문학, 예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up-to-date 해야 합니다. 저도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대학교수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될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더구나 대학총장이 된다든지 은행그룹 회장이 되겠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생때 'Time 반'이라는 동아리에서 3년 동안 시사주간지 Time지를 읽으면서 모든 분야 세계 흐름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은퇴연론인 영시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직장의 전문가만 되고 앙트프리누어가 되지 말라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급부상해서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구인회, 이병철, 정주영, 최준현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2019 졸업 축하



without capital)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20년 만에 무자본으로 세계 최대 주식가치를 가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요사이 사상최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혼으로 화제가 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로맨스가 큰 이혼을 유도한지도 모르겠지만, 고대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무자본에서 성공하시고 학교에 기여한 거금을 회사하신 존경할 고대출신들을 만나게됩니다. 교양관을 지어주신 박종구 회장, 런던대학에 고대 기숙사와 안암캠퍼스 정문 소나무를 매입해주신 이상일 회장, 이과대학 연구동을 설립해 주시는 권오섭 회장,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을 만드신 김재철 회장, 의과대학 강당을 지어주신 유광사 원장님들도 만주먹으로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앙트프리누어십과 열정을 가진 도전정신이 있으면 지금도 누구나 웅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100년을 살면서 누워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선 운동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합니다. 매일 스쿼트, 푸쉬업 100개씩 하십시오. 여자골프선수도 푸쉬업 1천개를 매일 한답니다. 남미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은 Pablo Neruda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4가지는 독서, 여행, 운동, 음악이라 했습니다. 밥 먹듯이 매일 운동하십시오. 저도 늦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예교수를 포함한 경영대학교수 골프대회에

서 70대 노교수가 혈기 왕성한 40대 젊은 교수를 누르고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제력과 앞으로 부상할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 중국의 부상은 세계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웃 아시아 국가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행을 많이 하면서 몸으로 문화를 느끼고 또 중국어, 일본어를 익히십시오. 세계를 제패했던 네덜란드의 대학졸업생들은 EU이웃나라 언어인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 3~4개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행정을 하다 보니 졸업생이 대통령이나 대학총장이 되어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이나 호를 따서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매우 감사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고대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가슴을 펴고 가족, 친구 여러분들과 마음껏 오늘을 즐기십시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침없는 도전,
우리는 KUBS를
믿습니다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HYUNDAI
MOTOR
HALL

2019 상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2019년 3월 21일(목) 18:30 언주역 인근 TAIHE에서 「2019년 상반기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구자형(경영74)수석부회장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김재욱(경영81) 경영대학 학장은 인사말로 “신임학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경영대의 발전은 경영교우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박수근(경영8)감사의 감사 보고로 2018년 회계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며 2018년 결산(안) 승인,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대한 안전심의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60명의 경영대 교우회 임원이 참석하였다.



경영809 인터뷰

제38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서 809모임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단체가 교우의 밤에서 수상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그들을 만나
소감 및 809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초대회장 80학번 이선용, 3기회장 81학번 박수근, 4기회장 82학번
여용동, 4기 사무총장 85학번 권태우



제 38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단체가 수상을 한건 처음인데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수근(경영81/3기회장-이하 박) : 먼저 이런 큰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809는 회원의 나이가 교우회의 주축이 되고 있

는 연대입니다. 그런 역할적인 기대도 상을 주신데 한 몫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809는 그동안 여러 행사를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809의 이름으로 장학금 기부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높게 평가 해주셨겠지만, 809에 속하는 81학번~89학번까지의 많은 교우들의 개개인이나 동기회들의 다양한 활동들도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809회원들은 80년대 격동의 시기를 함께 보낸 사람들만의 끈끈한 유대관계나 동료의식이 있는 편이지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학년별 단합이나 동기애도 유난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용(경영80/초대회장-이하 이) : 방금 박수근 후배가 말한 대로 저희 809가 전체 경영대 교우의 주축이 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보니, 교우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달라는 당부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809를 설립할 때 '교우회 발전을 위한 단체'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인정 해주신 것 같습니다. 809모임을 통해서 학년별 활동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교우회 참여도도 높이며 노력해왔습니다.

809 창립스토리를 말씀해주십시오.

이 : 67학번 허창수 선배님께서 교우회장으로 계시던 시절 교우회에서 여러 행사가 활성화가 되고 다소 젊은 학번들도 교우 전체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쉬웠지만 교우 전체 행사는 참석자가 서로 학번차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09, 809, 909 연대별로 그룹을 나누어 소모임을 먼저 활성화 시키고, 이것으로 교우회의 활성화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연대 모임 중에 하나가 저희 809입니다.

마침 그 당시 저는 80학번 동기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809연대에서 가장 선배 학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809 회장을 맡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사안은 우리 모임자체가 교우들의 모임이다보니 '재미있는 모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809연대 모임이 즐겁고 또 그 즐거운 모임을 통해 교우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정말 열심히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동기회별 임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809연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보다 오픈된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임 안에서는 선후배의 개념은 많이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회원 모두가 동료가 되었지요.

다른 소모임보다 809모임이 유난히 활발하게 운영

되는 비결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우(경영85/47사무총장-이하 권) : 선대 회장님들께서 10년 동안 워낙 운영을 잘하셨기 때문이지요.(웃음) 저희 4기는 이번에 발대식을 했는데요 선배들께서 지난 10년간 단단히 만들어 놓은 모임을 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친목을 위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희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기 멤버들이 어떤 단체나 모임보다, 1순위를 809로 두고 자주보고 돈독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었습니다.

박 : 네. 이선용 선배님 말씀대로 친목으로 809를 단단히 만든 후, 단순한 친목활동에 그치지 않고 모교발전이나 교우회 기여, 동기회 활성화에 이바지, 장학사업 등 여러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들도 우리 모임의 이런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 809설립당시 80~83학번까지만 동기회가 설립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 경영대 졸업생들만의 훌륭한 전통인 '교우의 밤' 장학금 모금 행사를 졸업 25주년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진행한 학번 선배들이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이 행사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것도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량을 조금하자면 역대 최고 모금액도 저희 809연대 내의 학번에서 나왔습니다.(웃음)

809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 : 창립 해에 80학번은 49세, 89학번은 40세로 모두 40대였는데 올해 창립 10주년이 되어 이제는 모두 50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모두 어려서 베테리파크 소풍을 함께 갔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다시 올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대신 새롭게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박 : 이선용 선배 말씀대로 모두 40대였던 시절을 함께 보내고 이제는 모두 50대가 된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10년 후의 우리를 함께 기대하고 계획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권: 전 809 골프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809 행사라면 열 일 제치고 참석해주는 전인지(13)선수가 있는데 이젠 809의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끼리 이야기로 전인지 선수는 809의 좋은 기운을 받아 더욱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농담을 나누기도 합니다.(웃음)

앞으로의 809

여용동(경영82, 4기회장)저희 4기 집행부의 운영 기본 방향은 '활발히 소통하는 809', '809프라이드 제고', '참여하는 809, 재미있는 809', '즐거운 골프대회'로 잡았습니다.

활발히 소통하는 809

- 이사회와 학번 대표 중심의 소통체계
- 효율적인 공지를 위한 연락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
- 809 역사를 기록하는 소중한 공간의 지속적 운영

참여하는 809, 재미있는 809

- 지역 학번 간 소모임, 번개 모임 활성화로 회원 참여 공간 확대
- 등산, 와인, 스포츠, 문화예술 역사 탐방 등 이벤트 및 동호인 모임 추진

809프라이드 제고

- 회원의 경조사 및 기념일 적극적으로 챙겨주기
- 모임 기여자에게 예우 제공 & 자발적 기부 문화 정착
- 모교 및 사회 봉사 등 사회적 기여 활동의 기회 창출

즐거운 골프대회

- 이벤트 조편성
- 골프 빙고 게임

저희 809는 친목 뿐 아니라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단체입니다. 초창기 학번 대표들로 만들어진 모임에서 현재 80~89학번이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제24대 경영대학(원)장으로
김재욱(경영81) 교수가 취임했다.

2019년 3월, 취임 후 4개월이 지난

김재욱 학장을

경영대 교우회에서 만나보았다.

경영대학(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학장으로 경영대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회와 기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후 4개월 동안 전임 학장님들께서 잡아놓으신 목표와 비전을 승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경영대 발전을 위해 세우신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에 있었던 연찬회에서 교수님들과 연구, 교육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 반영을 통해 경영대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의 학장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발전 계획을, 학장 임기인 2년 동안이 아니라 10년 후의 경영대의 발전적인 모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께서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하길 응원합니다. 우리 경영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목표와 마음으로 경영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큰 위기에 봉착 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위기가 아닐지라도 이 마음을 새기고 있다면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대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고려대 경영대학은 그동안 국내 경영 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국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 경영대학의 연구 성과와 교육역량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변화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인 21세기 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주변의 격변하는 환경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개선위원회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Digital technology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기술 환경의 변화가 경영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기업과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것이 교육에 다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러기위하여 교원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영대학의 국제화 수준은 국내 타 대학과 비교하여 다소 지체되어 있어 외국인 교원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여성 교원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과반수가 여학생인 상황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여성 교수 확충은 여성 학우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대 교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경영대학이 현재의 위치에 있기까지는 교수들의 지원과 성원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명의 교수로서 느끼는 점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들의 애교심은 어떤 대학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러한 애정과 지원으로 현재 우리 경영대학의 하드인프라는 국내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그 하드웨어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에 발맞추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쟁력 있는 경영대학이 되기 위하여 교수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영대학은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모교에 보내주시는 사랑,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조언이 있었기에 지금의 경영대학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교우회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수님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채 일반행정 직렬 합격생(부서 미정)

11학번 안준영



Q.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학창생활을 마치고 사회인이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감사합니다. 2011년 입학 후 8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안암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우선 섭섭한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드는 마음은 설렘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8년, 초 중 고를 합치면 총 20년간의 기간은 부모님의 울타리, 학교의 울타리 내라는 보금자리에서 머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보금자리를 떠나,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 제 돈을 벌고, 제 차와 제 집을 장만하고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인생의 새로운 막으로 넘어가는 국면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긴장되고 두려우면서도 한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슴 벅찬 설렘을 가져옵니다. 학창 생활을 마치고 사회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저의 소감 역시 그러합니다.

Q. 대입 선택시 고대 경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입 선택 과정에서 고대 경영을 선택한 이유는 고대 경영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고려대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려대학교의 인적 네트워크의 뛰어남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비록 고려대학교 재학 기간 중에는 고시 공부로 인해 교우회 관련 활동을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제 장기중 하나가 친화력 좋은 성격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단단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경영대학이 저의 장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고려대 경영대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Q. 자랑스러운 고경인으로서 졸업 후의 포부

A. 저는 이전부터 꼭 공직에 임관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이지만, 다행히도 공직에 임관되는 것은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구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서, 정의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하여 공직에 봉사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학교와 좋은 교수분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과분한 것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이룬 성취에 저의 지분은 없으며 모두 이들의 도움과 축복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제가 받은 것을 베풀며 살아갈려고 합니다. 다만 좀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도달할 수 있을 최고의 위치까지 나아가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Q. 교우회 새내기로서 안준영 교우를 자랑스러워 할 선배 교수님들께 한마디 & 앞으로 경영대 교우회를 이끌어 갈 젊은 교우로서, 경영대 교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선배 교수님들께, 저도 이제 갓 졸업장을 받은 고대 경영의 사람으로서 선배님들의 이름과 고려대학교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먼저 나서셔서 밝히신 등불과 전철 덕분에 저같이 부족한 후배도 용기를 얻고, 제가 원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선배님들 뒤를 따르는 후배임과 동시에 뒤따르는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로서 선배님들이 밝혀주신 길을 이어서 후배들을 위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 교수님들께, 아직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부족한 선배이지만 후배님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 인(人)자와 같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받침 위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받쳐주고 있는 부모님, 친구들, 고려대학교, 그 든든한 버팀목들에 저 역시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동정



구자열(경영72)

2019년 3월 28일 구자열 교우가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종양(경영81)

2018년 11월 21일 김종양 교우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 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총재로 선출되었다.



노진호(경영82)

2019년 2월 5일 노진호 교우가 우리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에 선임되었다.



김경문(경영78)

2019년 1월 28일 김경문 교우가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이현석(경영81)

2018년 11월 28일 이현석 교우가 통신 유통 전문 회사 KT M&S 사장에 임명되었다.



안동현(경영82)

2019년 2월 19일 안동현 교우가 삼성증권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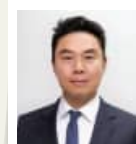
권길주(경영79)

2018년 12월 28일 권길주 교우가 KEB하나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훈복(경영81)

2019년 2월 26일 이훈복 교우가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정지영(경영82)

2018년 12월 7일 정지영 교우가 현대백화점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양상문(경영79)

2018년 11월 26일 양상문 교우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감독으로 취임하였다.



장부연(경영81)

2018년 12월 23일 장부연 교우가 현대자산운용 대표에 선임되었다.



김능환(무역83)

2018년 12월 김능환 교우가 KB국민카드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이동열(경영79)

2018년 11월 28일 이동열 교우가 아웃소싱서비스 기업 LG서브윈 사장에 선임되었다.



최광우(경영81)

2019년 1월 20일 최광우 교우가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단장에 선임되었다.



최종만(경영83)

2019년 1월 7일 최종만 교우가 주택건설업체 건영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임영진(경영79)

2018년 12월 21일 임영진 교우가 신한카드 사장에 연임되었다.



김경규(경영82)

2018년 12월 14일 김경규 교우가 농촌진흥청장에 선임되었다.



권종로(무역84)

2018년 11월 23일 권종로 교우가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되었다.



노충식(경영84)

2019년 2월 12일 노충식 교우가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종길(경영87)

2018년 11월 1일 김종길 교우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하였다.



배형근(경영84)

2018년 12월 19일 배형근 교우가 현대모비스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홍종성(경영87)

2019년 1월 24일 홍종성 교우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총괄대표이사에 선출되었다.



김성일(경영86)

2018년 12월 7일 김성일 교우가 현대백화점 그룹 산하 케이블TV방송 사업자 현대 HCN 대표에 선임되었다.



허준홍(경영94)

2018년 11월 27일 허준홍 교우가 GS칼텍스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김영준(경영87)

2018년 11월 24일 김영준 교우가 1985년에 설립된 한국생산성학회 차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교수동정



어윤대(경영63 / 전 고려대학교 총장, 명예교수)

어윤대 전 모교 총장이 2019년 2월 19일 제24회 한국경영학회 동계정기총회에서 상남경영학자상을 수상했다. 상남경영학자상은 한국경영학회가 국내 경영학계 발전을 위해 1995년 지정한 상으로, 학문적 기여도와 교육·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시상돼왔다. 어윤대 전 총장은 이날 “은퇴한 지 8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학자로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전했다. 어 전 총장은 한국금융학회장, 한국경영학회장을 거쳐 초대 국제금융센터 소장,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 등을 지냈다.



장하성(경영74)

1990년 3월 부임, 2019년 2월 28일 장하성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NEW BOOKS

신간 소개



1 지레의 추억

표제작인 『지레의 추억』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60여 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추억을 그대로 적은 지레의 추억과, 60여 년이 지나 백발의 나이에 추억 속의 현장을 찾은 '다시 지레를 찾아서', 저자가 평생을 살면서 불우한 사람과 특히 청소년을 위해 살아온 이야기 등을 담은 '석양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남편을 위해 일생을 뒷바라지 한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담하게 풀어낸 '내 아내'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추억을 불러내는 문장 속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지만 아름다운 산골 풍경과 그 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여러 상황 속에서 깊고 높은 계곡과 산등성이를 오르며 쏟아낸 아름답고 순수한 감정을 그려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자를 감동시킬 것이다.

권상진 (상 59) | 학이사 | 2018. 12. 1.



2 삶안에 흐르는 시

그동안 문학도의 길을 걸어왔던 것도 아니어서, 아름다운 시어 구사능력이나 문학적 표현능력도 많이 부족하여 시집을 엮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기가 무척이나 망설여졌다. 하지만,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어느덧 노년에 이르러,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돌이켜보며, 삶의 체험과 희로애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집을 한 권 갖고 싶어 용기를 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출사(卒詩)의 모음이 시집이 될 수 있음을 감히 보여드릴으로써, 혹시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독자들에게도 무언의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삶의 여정에서 제기되며 맞닥뜨려지는 관심 이슈(issue)나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체취와 흔적인, 기쁨과 슬픔, 고뇌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평이하게 표현하는 서술적 산문형식의 생활 서정시를 쓰고 싶었다. 종래의 시 특유의 창의적 발상과 압축적이며 비유적인 추상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고 가능한 기, 승, 전, 결의 감성의 흐름을 통하여 마음을 교류하며 많은 이들과 공감했으면 한다. 정치, 경제 등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사회의 가치관 및 윤리관의 상실과 혼돈, 팽배한 이기심 등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가 크게 흔들리는 시대적 아픔과 슬픔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해가며, 함께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싶다.

심재중 (경영70) | 보림에스앤피 | 2019. 4. 1.

경영대학 김동원 교수, 경영대 학생들을 위해 1천만 원 기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동원 교수가 경영대학에 경영대학 장학금(KUBS Dream Scholarship)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김동원 교수는 “경영대학과 학생들을 위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런 기부식으로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에 시집간 딸이 경영학과 2006학번인데 모교에 기부금을 함께 내게 되어 아주 기뻐한다”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김재욱 학장은 “학장으로 재임하실 때에도 경영대학의 발전

을 위해 애써주신 것을 경영대학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다”며 “우리 경영대 학생들을 위하시는 교수님의 아낌없는 마음을 본받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동원 교수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영대학 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국제노동 고용관계학회장으로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학문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영56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

경영 56학번 동기회 2018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모임이 올해에도 매월 월례회 모임을 갖는 장소인 약수동 소재 춘천 막국수집에서 12월 26일에 열렸다. 이 식당은 비록 단층 집 허름한 대중식당이지만 연예인, 대학교수 등 사회 명사들이 많이 찾는 TV에 소개된 음식 맛이 뛰어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난 식당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락가능한 동기가 불과 50명 미만이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1명이나 참석해서 80대 중반의 노신사들이지만 나이를 잊고 학창시절의 젊은 패기를 되새기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빠짐없이 마지막 순서는 항상 고대생 특유의 애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호 “입시렌터 체이츨...”을 힘차게 외치며 다음 월례회 모임에 참여를 독려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경영56 막수회 모임 ...

수 십 년째 지속되어온 경영56 동기회 월례모임인 막수회가 2018년도에도 정기총회 있는 12월 모임을 빼고 11번 모임을 가졌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모인다고 해서 막수회(총무 변동수 동기가 작명)란 애칭을 쓰고 있다. 2018년도에도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도 아랑곳 없이 11번의 모임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약수동 춘천 막국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연인원 107명 1회 평균 11명의 교우들이 모여 춘천 막국수집 광동진 사장과 신씨 아주머니가 가정식 요리같이 만들어주는 특이한 빈대떡을 서울시내 다른 음식점에서 맛보기 힘든 잘 삶아진 삼겹살과 이름난 춘천 막국수 맛을 소주와 곁들여 즐기며 우정을 쌓아 가고 있고 동기들에게 소문이 퍼져 몇 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나 또 해외로 이민 간 동기들도 이 모임에 참석해서 학창시절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춰가며 모임의 진가를 더 높여가고 있다. 모임이 끝나는 시간엔 헤어짐이 아쉬워 일어나지 않고 더 오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동기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모임에 참석 못했던 56학번 동기들 중 이 소식을 읽은 후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동기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모임의 회비는 참석하는 달 1인당 만원만 받고 있는데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그 달 식대를 전부 부담하는 찬조를 해주는 동기들 덕에 해가 갈수록 기금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식대를 찬조해준 박종혁, 양인환, 오병해, 이종순 동기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동기회 송년모임 ...

• 일시 : 2018년 12월 14일(월) • 장소 : 논현동 취영루
동기 70여명이 참석한 송년모임에서 김우찬 회장은 금년에도 동기회의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동기회 활성화에 협조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또한 내년 동기회 전체 모임인 상반기 오찬 모임에도 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월회 소식 ...

씩수달 둘째 월요일 만남은 이월회는 2018년 12월 10일, 2019년 2월 11일 12시 30분 양재역 5번출구 앞 골목안 평창 할머니집 2층 “양재등심”에서 12시 30분에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이월회 회장 성영일 동기 외 동기 20명이 모임식대를 가나다 순으로 2명씩 부담하고 있다. 성영일 동기 외 김우찬, 이병우, 박성학, 왕규철, 정시균, 김순구, 채갑병, 박인우, 도영희, 정희교, 엄종일, 이복성, 이채영, 이준원, 김충홍, 김지균, 김근도, 김문웅, 김윤장 동기가 참석하고 있다. 다음 4월 8일 모임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광암회 소식 ...

홀수달 둘째 화요일 역삼역 “참배나무골”에서 12시에 만남은 광암회는 2018년 11월 13일, 2019년 1월 8일, 3월 12일 각각 모임을 가졌다. 회

장 이채영 동기 외 김우찬, 이병우, 김순구, 김문웅, 김승현,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은동, 김윤장, 민병직, 박수죽, 박인우, 박광옥, 박성학, 양재광, 엄무성, 이경순, 이창웅, 이근창, 이정남, 이준웅, 장경작, 정시균, 정홍진, 채갑병, 최 섭, 최 흥,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 32명이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5월 14일 정례모임은 5월 17일 전체 동기모임과 겹쳐서 7월에 갖기로 하였다.



사목회 소식 ...

매월 넷째 목요일 10시에 만나 서울둘레길을 걷고 있는 사목회는 2018년 11월 22일, 12월 27일, 2019년 1월 24일, 2월 28일 각각 걷기모임을 가졌다. 회장 박인우 동기를 비롯한 김문웅, 김순구, 김병수, 김근도, 민병직, 박우용, 박수죽, 박원우, 엄무성, 이경순, 이원태, 이창웅, 이채영, 김택원, 최 섭, 최창규, 하준기 등 19명이 함께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3월 27일에는 필동 한옥마을과 남산 북측 둘레길을 걷기로 하였다.



초암회 소식 ...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만나는 초암회는 2018년 11월 20일, 2019년 1월 15일, 3월 19일 반포동 "산들해 한정식"에서 회장 성영일 동기 외 21명이 정례모임을 가졌다. 연초에 연회비를 내어 오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영일 동기를 비롯한 강승렬, 구중서, 김성희, 김연재, 라석균, 박성현, 성규진, 양재광, 안희민, 이복성, 이정남, 조일규, 전춘옥, 정기성, 정의철, 채규학, 최창규, 홍대우 등 동기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도암회 소식 ...

매월 셋째 금요일에 만나는 "도암회"는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월 18일, 2월 15일, 3월 15일 13시 여의도 리버타워빌딩 2층 "봉평 우가네 막국수"에서 회장 김 실 동기를 비롯한 김홍근, 김도민, 김윤장, 박광동, 박광근, 박운서, 이준웅, 이채영, 최 흥, 조방래, 채규학, 서진석 등 13명의 회원들이 불고기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불자회 소식 ...

홀수달 셋째 일요일 전국 사찰순례를 다니는 불자모임에서는 2018년 11월 18일, 2019년 3월 17일 봉선사 신록사 행불선원 등을 순례하였고, 엄무성 동기 부부, 최민자 동기 모자, 박수죽 동기 부부, 박진자, 김순구, 박인우, 이병우, 이채영 동기 등이 동참하고 있다.



기타 소모임 소식 ...

1. 분기별로 만나는 광화문 "산채향" 오찬 모임은 2018년 12월 4일, 3월 13일에 만나 서로의 근황과 건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진석, 채규학, 전춘옥, 정광수, 김윤장, 손 민, 이채영 동기 등이 참석하였으며, 다음 모임은 6월 24일 월요일에 갖기로 하였다.

2. 그 외에도 2019년 2월 19일, 2월 27일에 각각 광주에서 올라온 전 동기회장 박준성, 전 감사 김정자 동기와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문웅, 김순구, 박수죽, 박인우, 박진자, 최민자, 엄무성, 이경순, 이채영, 하준기 등 동기 9명이 참석하여, 광화문 "산채향"과 신용산역 "명가"에서 모임을 갖고 상경을 축하하였다.



62

(회장 오무환 / 총무 한상욱)

62학번 정기총회 및 송년회 ...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5시
- 장소 : 팜스팜스

경영대학 62학번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팜스팜스에서 41명의 동기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이번 송년모임에는 권동욱 동기 부부가 라틴댄스를 선보여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총회에서는 2019년도 경영대학 62학번 회장으로 오무환 동기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사무총장에 한상욱 동기가 유임되었다.



회장 오무환



62학번 등산모임 ...

- 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62학번 등산인들이 충무로역에서 만나 남산 팔각정에 올라 봄기운을 만끽하고 하산하는 도중 약간의 다과로 회포를 풀고 남대문 시장 안 막내화집에서 회를 먹으며 환담을 나누고 장소를 옮겨 생맥주를 먹으면서 서로 건강을 다지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였다.



63

(회장 남 훈 / 감사 유윤상)

11월 등산모임 (등산회장 : 윤익순) ...

-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우리 70대 중년들의 건강을 자랑하는 63등산회원 14명이 입동이 지난 늦가을의 때늦은 비를 맞으며, 3시간여에 걸쳐 서울대공원 둘레길 트레킹을 완주하였다. 비교적 굵은 빗속을 어린이 노래에 나오는 검정우산, 노란우산, 파란우산을 쓰고 걸어가듯 웅기종기 걸어가며 트레킹 중간에서 박종일 동기가 지고 온 막걸리를 꿀, 감, 사과 등 과일을 간식으로 한잔씩 목을 축이며 즐거운 추억담을 곁들이니, 동기들 간의 우정이 더욱 더 돈독 해졌다. 비를 흠뻑 맞고 난 후 정익기 동기가 경마장 옆의 봉덕식당에서 따끈한 칼국수와 막걸리, 소주 등으로 입과 배를 호사 시켜 주니 이런 행복감을 어디서 찾으리요.



12월 송년모임 ...

-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그야말로 다른 해보다 더 시끄러웠던 무술년을 보내고 새롭고 희망찬 기해년을 기대하며 양재역 엘타워 디오디아에서 뜻 깊은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 송년모임은 58명이 나 되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도 현역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맹활약중인 김하중 동기가 맛있는 뷔페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택 동기가 고급와인을 제공하여 참석한 동기들 모두의 행복감을 상승시켜 주었다. 더욱이 전현찬 동기가 손주들을 위한 과학동화책을 선물하였으며, 입학 55주년 기념 타올과 김하중 동기, 어윤대 동기가 준비해온 카렌다로 다른 해보다 더 풍성한 송년모임을 즐겼다.



12월 등산모임 ...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하얀 눈을 맞으며 산행하지만 날씨는 춥지 않아 청계산 옥녀봉에 올라 오랜만의 설경을 감상하니 우리 70대 중년들의 가슴과 마음도 젊은

청춘 못지않게 설레는 것 같다. 이연송 동기의 설경을 담은 인증샷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속에 간직될 것이다. 산행 후 영주 축산농협식당에 가니 조원영 동기가 한우불고기와 막걸리를 준비하여 14명 동기들의 입과 배를 호사시켜주었다. 이런 포만감과 행복감을 가득 안고 집으로 향하는 모두의 발걸음이 가벼워보인다.



신년 첫 등산모임 ...

•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봄 같은 겨울날씨이지만 청계산 옥녀봉 올라가는 길에는 아직도 계곡물이 꽁꽁 얼어 있어 봄맞이가 싫은 모양이다. 신년 첫 산행이라 많은 동기들이 옥녀봉에서 금년 한해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등산하도록 해달라고 옥녀에게 기도하고, 하산하여 영주축협식당에서 20명의 동기들이 양원석 동기가 협찬한 오찬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2월 등산모임 ...

•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

입춘이 지났으나 여전히 쌀쌀하지만 그런대로 생각보다는 춥지 않아 등산하기에는 알맞은 날씨로 70대 중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산 후 19명의 동기들이 우성규 동기가 협찬한 오찬을 즐기며 한담을 하고 헤어졌다.



63학번 오찬 정기모임 ...

• 일시 : 2019년 3월 4일(월) • 장소 : 영주한우식당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나이 먹은 사람들의 거동을 머뭇거리게 하지만 3개월마다 모이는 오찬모임에 42명의 많은 동기들이 12시에 영주한우식당에 모여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들을 보고 반갑게 안부를 묻고 한담을 나누며 한우 불고기로 입맛을 돋우었다. 이종부 동기가 통 큰 협찬을 해주었다.



3월 등산모임 ...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드디어 봄이 오려는지 옥녀봉 길에 진달래가 얼굴을 빼꼼 내미는 모습이다. 며칠 동안 미세먼지 공포가 계속되어 외출하기에도 부담스러웠지만 63학번 등산모임 날에는 오랜만의 맑은 공기로 숨통을 트이게 한다. 18명의 동기들이 남 훈 동기가 협찬한 오찬과 막걸리로 친목을 도모 하였다.



골프모임(골프회장 : 정익기) ...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 장소 : 강원도 원주 벨라스톤CC

새해 들어 첫 골프 모임을 원주에 위치한 벨라스톤 컨트리클럽에서 4팀 16명의 동기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4개월 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몸을 풀었다. 8시 14분부터 스톤코스와 벨라코스 두 팀씩 나누어 티오프를 하고 오랜만에 잔디를 밟으며 이제 막 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꽃나무들을 감상하며 라운딩을 하였다. 특별히 이날은 미국에서 모국을 방문한 조준제 동기가 같이 라운딩을 한 후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조찬과 오찬을 찬조하고 LA에 있는 동기들 소식을 전했다. 조준제 동기는 초창기의 골프멤버로 2002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이후 간혹 모국방문을 하여 동기들을 만나 회포를 풀곤 했다.



64 (회장 성기남 / 사무총장 박채길)

경영64 등산모임 ...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 장소 : 양재역 엘타워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8년 연말 정기총회를 가졌다. 권영기 회장과 70여명의 동기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2019년도의 동기회 회장단으로 회장 성기남, 총무 박채길, 감사로 최종한 동기를 선임하였으며 동기회의 2019년도 소모임 회장으로 등산회 이경희, 골프회 김동훈, 기우회 신방호, 당구회 김정광 동기를 각 모임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날 회장은 "현재 7-80명의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늘리기 위하여 '고대경영64동기총회' 이름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참여 가능한 전 동기들을 등록하고 참여 안하는 동기들에게 우편을 이용해서라도 동기회 참여를 널리 독려 하겠으며 각 소모임 회장들도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동기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연설했다.



회장 성기남



총무 박채길



68 (회장 김천수)

68학번 송년모임 개최 ...

-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저녁 7시
- 장소 : 강남역 SC컨벤션센터 12층

약 50여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여러 명의 교우가 공로를 기념하여 공로패와 공로상을 수여받았고 장기자랑과 푸짐한 선물로 한 해 마무리 지으며 송년모임을 마쳤다.



69 (회장 이재선 / 총무 조현룡)

교우의 밤 ...

-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우리 69학번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42명 참석하여 최다참가 2위상인 벽제갈비 식사권 60만원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VIP추첨에 우리 김영찬 동기가 김치냉장고를, 김재찬 동기가 43인치 UHD TV에 당첨되었다. 사진과 영상은 다음카페 69석영회에 게시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란다.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

- 일시 : 2018년 12월 16일(목)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 2층

매년 고대 69학번 교우회는 '고대 경영대 교우회의 밤' 행사이후 12월 20일경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2018년 행사에도 고대 69학번 중 경영대 출신 교우회인 69석영회는 당일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교우회에는 경영 69학번 '석영회' 이정주 동기가 부회장으로 있고 회장은 신방과를 졸업한 한규식 교우며 2018 총회 결의사항은 2019년도에는 69학번 교우들이 만 50주년을 맞이하므로 50주년 특별행사를 치르기로 결의하였다.



경영대 은사님 모시기 ...

-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 장소 : 노량진 수산시장 진주성

•참석자 : 조익순 교수님, 조익순 교수님 옆 장남 조낙양 박사님, 58학번 지 청 교수님, 김재욱 경영대학장, 66학번 김영환 벽제갈비 회장, 69학번 김두봉, 목이균, 이병재, 조현룡, 74학번 구자형 경영대 교우회 수석부회장

96세 조익순 교수님께서 건강에는 대방어가 최고라 하셔서 69학번 동기들은 노랑진 수산시장 진주성으로 교수님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58학번 지 청 교수님부터 81학번 경영대학장까지 거의 4대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은 고려대 경영대에만 있는 모임이기도 하다. 20년째 이어오는 사제시간의 모임은 고려대 안암골 인연의 따뜻한 모임이다. 비록 예전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지셨지만 언제나 강단있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50년 전에 강의실에서의 교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금년에도 교수님과 고연전 축구경기를 함께 관전할 것을 기다리며 제자들의 간절한 염원, 교수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석영회 신춘단합대회 ...

• 일시 : 2019년 3월 8일(목) 13시 • 장소 : 봉피양 대치점

•참석자 : 69학번 석영회 19명 (특별참석: 조익순 은사님, 아드님 조낙양 박사, 구자형 경영대 교우회 수석부회장) 모두 20여명 참석

우리 69학번의 영원한 스승이신 조익순 은사님을 모시고 69학번 석영회 신춘단합모임을 가졌다. 구순이 훨씬 넘으신 조익순 은사님께서는 아드님의 부축으로 계단을 올라 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며 축하도 하셨다.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시 최다참가상으로 받은 60만원 식사권을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행운상을 받은 김영찬, 김재찬 동기가 찬조하였다. 입학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9학번 모든 동기들의 마음을 담아 조익순 은사님께 조현룡 동기가 사재로 1,000불의 세뱃돈(?)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월례산행 ...

- 11월 26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12월 24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산악대장 변경(장백희 동기에서 윤영수 동기로 변경, 2019년 1월부터 임기 시작)
- 1월 28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2월 25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3월 25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기타 69학번 소식 ...

1. 구자삼 동기 몽골 정부 금융정책 자문간 활동 현황

구자삼 동기는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에서 파견하는 몽골정부 금융감독원의 금융정책수립 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며 정부 관리들 대상으로 강의세미나도 하고있고 우리나라 문화전도사 역할도 겸하여 활동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고대 망년회가 개최되었다. 고대가 세계적인 대학인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몽골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막걸리 찬가도 같이 불렀다. (구자삼 동기가 몽골 고려대 최고참 선배)



2. 이영식 동기 유튜버 진출

2019년 2월 6일부터 '혈탁 시리즈' 연재를 시작하여 3월 18일 현재 15편을 연재중이다. '혈, (무릎치며) 탁!' 소리 나는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편 '연상암기법-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워?', 3편 '내가 물로 보여? 그래 이 물탱아!', 6편 '넋셈구구단' 등이 있다. 우리 동기들과 교우들의 많은 응원을 요청드린다.



70

(회장 이찬중 / 총무 조안석)

2019년 동기회 모임소식 ...

70 동기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둑 모임을 새로이 추가하여 월 모임을 4번으로 늘려 친목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점심모임 2번, 마지막 토요일 등산모임, 4번째 목요일 바둑시합을 갖고 있다. 고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매달 시합을 하고 연말에 통합 타이틀전을 가질 예정이다. 4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해남, 진도, 완도, 목포를 돌아보고 봄 향기를 한껏 느끼고 올 예정이다.



74

(경영회장 조철래 / 사무총장 구자형)

가을나들이 ...

•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9시 30분 • 장소 : 강촌, 김유정 문학촌, 금병산 둘레길
경영74 가을나들이에 많은 동기들이 참여하였다. 진행에 있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강촌의 구곡폭포와 문배마을 올라가는 길에서 접하는 만추는 매우 아름다웠고 중턱에서의 맥주 한 잔은 정말 맛있었다. 춘천달갈비집에서 모든 동기들과 함께 식사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점심을 내준 한호석 74동기회 명예회장에게도 감사드린다. 몇몇 동기들은 서울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동기들은 김유정 역으로 가서 다시 금병산 둘레길을 걸었다. 동기들 각각의 체력적인 차이와 다양성 때문에 일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가을 나들이를 진행하는 총장으로써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가을 나들이를 즐기는 만추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김유정역 근처에서 맛보는 막걸리는 동기들과의 우정을 더욱 더 깊게 해주었고 감자탕집에서의 이른 저녁식사는 동기들 모두 추억에 잠기게 하였다. 즐거이 먹고 마시며 정담을 나누다가 몇몇 동기들은 작별인사를 나누고 나머지 동기들은 노래 한 곡조씩 부르는 호사도 누려보았다. 저녁식사와 노래방 비를 제공해준 조철래 동기회장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 가을나들이 모임에 참석해준 동기들에게 감사드린다. 2019년 봄에는 보다 재미있고 알차게 나들이 모임을 만들어볼 생각이다.



새해맞이 당구모임 ...

• 일시 : 2019년 1월 11일(목) • 장소 : 서초동 에이치당구장
기해년을 맞이하여 경영 74학번 동기회 당구 신년 모임이 있었다. 평소에는 모임에서 보기 어려운 몇몇 동기들도 함께해 당구모임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았다. 멀리서 온 동기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동기도 있어서 더욱 좋았다. 당구를 마치고 근처 조그만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닭 찌개를 소주와 더불어 동기들과 주머니 받거나 하면서 즐기는 것이 우리 모임의 핵심이다.



새해맞이 모임 ...

• 일시 : 2019년 2월 2일(토)
여느 때처럼 총무로 대한극장에 많은 동기들이 모였다. 특별히 부산에서 근무하던 민장환 동기가 서울로 왔으며 참가했고 창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현기 동기가 오랜만에 참가하는 등 신년모임이라 20명이나 참석했다. 조철래 동기회장의 인사와 막걸리 건배제로 시작되었고 민장환 동기의 근황에 대한 설명에 뒤이어 3월 9일 오후 3시에 유대성 동기의 따님 결혼식이 있다고 구자형 사무총장의 공지와 함께 12월 31일부로 중랑구청 창업지원센터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근황도 전했다. 다음 모임은 3월 30일 9시 30분에 대한극장 대합실에서 만나 남산 둘레길을 돌기로 했다. 이 날에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승주 동기가 참석하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앞에 나와 단체사진을 찍은후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구장으로 향하였고 일부 동기들은 커피숍으로 향하였다. 3월 30일 남산 모임을 기대하며 모임을 마쳤다.



도봉산 모임 ...

• 일시 : 2019년 2월 4일(월)

매년 선달 그믐날이면 어김없이 친한 동기들과 서울에 있는 산에 오른다. 평소에도 만나는 동기들이지만 그래도 일 년에 한 번씩 정기모임으로 만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노라면 우리도 어느새 나이 들어감을 느끼고 서로의 우정이 익어감을 느낀다. 특별히 이번 산행에서는 한 동기의 제안으로 도봉산의 만월암이라는 암자에 올라 훌륭한 스님이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함께 선문답을 나누고 인생의 좋은 교훈도 느끼면서 우리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다졌다. 암자에서 동기들과 함께 먹는 점심공양은 색다른 느낌이었다. 스님과 아쉬운 작별 후 다시 도봉산 입구로 내려와 두부보쌈에 막걸리로 속을 달래고 당구를 치고나서 몇몇은 헤어지고 남은 동기들 셋은 선달그믐이 아쉬워 꼬막안주를 막걸리에 곁들이며 가는 세월에 대해 정담을 나누다가 지하철역에서 커피 한 잔 후 각자 집으로 향하였다. 동기들 모두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퇴직기념 모임 ...

•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강남의 어느 식당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정의 한 역할을 하느라 수고 많았던 정하성 전 정책실장 아니 이번 2월에 정년퇴임을 하는 장하성 동기를 위하여 정몽원 경영대 교우회장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기인 승명호, 전임회장이었던 반원익, 이문세, 한호석 동기와 조철래 현 동기회장, 구자형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 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위해 건배를 했고 동기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해외 및 국내 출장관계로 강호갑 전 회장, 이준학, 김동수, 장승철 동기 외 몇몇 동기들이 이번 모임에 참석 못하여 아쉬웠다. 정몽원 동기는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로 장하성 동기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등 동기들 간의 우정을 만끽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회장단 회의 ...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충무로의 어느 식당에서 경영74 회장단 회의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준학 동기를 제외하고 7명이 참석하였다. 조철래 동기회장의 인사와 건배를 시작으로 구자형 사무총장이 몇몇 동기회의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회장단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 화기에 애한 분위기속에서 회의를 마치고 2차로 인근 커피집에 들어가 못 다한 담소 나누고 헤어졌다.



3월 남산트레킹 ...

• 일시 : 2019년 3월 30일(토)

경영74 동기들이 꽤 많이 대한극장에 모였다. 캐나다에 이민 갔던 동기가 20년 만에 와서 그런지 멀리 부산, 대구에서 온 동기들까지 26명이나 참석하였다. 일기예보대로 비바람이 불었지만 동기들과의 우정의 벽은 역시 두터웠다. 남산 한옥마을에서 인증샷도 찍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남산의 개나리와 진달래를 보노라니 봄은 벌써 성큼 와 있었다. 동기들과의 우정덕분에 봄이 더 빨리 온 것 같았다. 해가 갈수록 남산트레킹 모임에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고 있다. 많이 참석해주어 고맙다. 다음 모임까지 건강하고 또 만나자.



74

(무역회장 이윤우/ 무역총무 이왕근)

무역74 신년회 겸 정기총회 ...

•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 장소 : 기와집순두부

교대역 부근 “기와집순두부 서초점”에서 개최된 무역학과 74학번 2019 신년회 겸 정기총회에는 20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신년 덕담을 나누고, 금년에도 동기 모두가 건강하길 기원하며 우정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또한 올 한 해 동기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에 이윤우 동기, 총무에 이왕근 동기가 선출되었다.



회장 이윤우



79동기들과 태국여행 ...

고동호 동기가 있는 태국으로 가지고 발의한지 3개월 만에 김정관, 김정태, 서학석, 양희창, 오성호, 이재우, 한병로, 허만길 등 모두 동기 10명이 함께하였다.

12월 15일, 인천공항 출발해서 방콕에 도착, 숙소인 Maple Hotel에 밤늦게 도착하여 팩소주와 캔맥주를 섞어 마시며 이국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12월 16일, 일찍 기상하여 호텔조식 후 Lam Luk Ka C.C.에서 골프를 쳤다. 이날은 마침 생일인 서학석 동기회장이 Sabaijai라는 태국민간식당에서 자축연을 가졌다. 면세점에서 친구들이 사온 양주 「발렌타인 21년산」 2병을 가볍게 비웠다. 고동호가 동부인하여 함께 어울렸다.

12월 17일, Alpine C.C.에서는 Bridgestone Golf Invitation 2018대회가 열리는데 고동호 동기가 미리 12명으로 참가예약을 해두었다 한다. 동기 10명과 부인, 후배 등 총 12명이 함께 참가하였다. 파3마다 있는 프로골퍼들과의 'Beat the Pro'내기에서 김정태 동기가 한 번을 비트해서 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행운상에 서학석, 김정관 동기가 당첨, 12번홀 니어리스트로 고동호 동기가 수상, 참가자 전원에게는 Bridgestone Ball 1box와 골프우산 및 점心和 저녁식사까지 제공되었다.

12월 18일, Ayodhya Links, 세계100대 명문 골프장의 하나로 태국에 있는 유일한 곳이다. 아름다운 호수와 어우러진 멋진 경관들... 코스 하나하나가 작품으로 보여 골프 치면서 경관에 넋이 나간 상태에서 골프를 쳤다. 더구나 저녁식사를 고동호 부부가 초대하여 '경복궁'이라는 한국식 횡집에서 숙성된 자연산 다금바리(grouper) 5Kg로 잔뜩 배불리 먹었다.

12월 19일, 방콕관광을 했다. 오전은 담논사두역 수상시장에서 조그만 배에 타고서 한 바퀴를 돌고 점심으로 쌀국수를 먹은 후, 오후에는 짜오프라야 강이 흐르고 있는 톤부리로 갔다. 거기는 아유타야 왕조가 미얀마의 공격으로 멸망한 뒤 15년간 수도 역할을 했던 유서 깊은 지역으로서 '왓이룬 새벽사원'으로 유명하다. 높은 탑으로 구성된 사원은 당시 왕조의 권위를 실감케 하였다. 김정태 동기가 Kuang Seafood에서 식사를 후원하였고 허만길 동기가 찬조한 로얄샬루트 21년산 한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12월 20일과 21일, 이들은 Muang Kaew C.C.에서 나름의 스릴을 즐길 수 있었다. 20일 저녁은 한병로 골프회장의 후원으로 Central shopping center내에서 야채 · 해물 · 고기 · 면 등을 담백한 육수에 살짝 데쳐 먹는 태국 대표적 대중음식인 Suki로 식사를 했다. 21일은 서학석 동기회장의 후원으로 산내들이라는 한국인 식당에서 삼겹살과 향정설 구이를 맛있게 즐길 수 있었다. 저녁때 Wi-Fi가 되는 호텔에 와서 보니 79동기회 카톡방이 불이 났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출신인 우리 79학번 동기 정진택이 총장으로 선임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12월 22일, 첫날 라운딩했던 Lam Luk Ka C.C.에 갔다. 전날에 더위 먹어 탈이 난 서학석 회장이 잔디 위를 걸어서 9홀까지 동행하다가 들어가고, 모두들 더위에 지친 싱글골퍼들의 많이 해매는 모습이 중하수들에게는 나름의 즐거움이 되었다.

12월 23일, 고동호 동기와 작별인사후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온 가족들 때문에 급하게 '굿바이'를 하고 귀가길에 올랐다. 7박 8일 동안 함께하며 환대해 준 고동호 동기와 부인, 준비하느라 애쓰 한병로, 김정관, 여러모로로 지원해 준 서학석, 김정태, 허만길 동기, 키 큰 친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송년모임 ...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18:30 • 장소 : 타이허

79경영의 아지트로 자리매김한 장치평의 타이허(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의정부의 중국집 '태화관'을 현지어화한 명칭)에서 송년회를 위한 자리로 모였다. 특별히 12월 연말에는 각종행사가 많지만 우리 동기관련 모임도 2중 3중으로 겹친다.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필두로 연말 당구대회, 산악송년회, 당구송년회, 79경영송년회, 79전체동기회송년회, 태국골프여행 등등...40명 가까이 되던 인원이 행사일에 가까울수록 조금씩 줄어 34명으로 확정되었다. 서학석 동기회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건배사로 시작하여 오랜만에 나온 류지성 동기가 삼성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안희준 동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해프닝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중년의 건강을 조심하여야 함을 한 번 더 일깨워주었다. 황일운 동기는 79전체동기회장을 마감하며 간단한 소회를 나누었고, 민경섭 동기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남도로 움직임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교우의 밤에서 받은 최다참가상 43" LG TV는 동기회기금을 위하여 경매에 붙여서 김정태 동기가 최고가로 낙찰 받았다. 고마운 일이다. 내년에는 황금돼지해를 맞는 친구들이 많을 것임에 따라 올해 황금 개띠 해에 화갑은 지낸 백종일, 황영환 동기가 나와서 한마디씩 나누었다.



2019년 신년모임 ...

•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 장소 : 일미옥

2019년 황금돼지의 기운으로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한해를 시작하는 첫모임이 있었다. 음식점에서 상위로 깔리는 보쌈과 오징어무침, 생굴의 향이 코끝을 자극하였다. 뒤이어 나온 쇠고기 보신탕은 그 양념이 보신탕과 같아 맛있게 먹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정시에 25명이 올 정도로 시간관념이 철저해진 것은 그만큼 일의 강도가 줄어든 우리의 현재를 보는 듯해서 씁쓸했다. 오성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먼저 2018년도 시행한 동기회 전체 사업결과보고가 있었고 소그룹별(등산, 골프, 당구)행사의 간략한 정리가 진행되었다. 2018년도 행사에 최다참가자는 15회 참석 김정태, 서학석, 오성호 동기, 12회 참석 이성훈, 장덕윤 동기, 11회 참석 김명국, 백종일 동기 등 7명으로 각각 10만원씩의 포상금이 주어졌고, 집행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가함은 물론 각종 찬조를 아끼지 않은 김정태 동기에게는 특별히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감사 김상해 동기의 감사보고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공표하였고, 결산보고에서는 총수입과 지출내역을 문서로 대체하였으며, 소모임 지원으로 인하여 동기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에 자축하였다.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많은 찬조를 아끼지 않은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어 2019년 사업계획으로 정기모임과 소모임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특별활동추진으로는 EBC(Everest Base Camp)트레킹과 돌로미테(Dolomites)트레킹, 지리산종주를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와 내년으로 집중적인 '회갑기념 행사' 진행은 집행부에 맡기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원분담금을 수석부회장은 50만원, 부회장은 3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황일운 동기가 79전체 동기회장직을 물러나는 소회와 40주년 홈커밍 행사관련 간단한 소개가 있었고, 한병로 골프회장, 장덕윤 산악회장, 김명국 당구회장이 차례로 나서서 올해의 소모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서학석 회장이 일어나서 올해도 역동적인 활동으로 황금돼지해를 복되고 건강하게 지내자는 인사말로 마무리하였고, 김지승 직전회장(고문)이 최종적으로 건배를 외치며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2019년 신춘 정기모임 ...

• 일시 : 2019년 3월 18일(월) • 장소 : 타이허

이번 모임은 장치평 동기가 운영하는 '타이허'에서 했다. 지난 연말 송년모임을 여기서 한 후 만 3개월이 흘렀다. 근황에 큰 변동들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임인원이 줄어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다. 물론 개별적으로 연락했던 친구들은 급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신한카드 사장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을 임영진 동기가 오랜만에 함께 어울리며 오늘의 모임비용을 후원했다. 더구나 다음 모임을 위해서 고량주 다섯 병도 미리 계산하였다. 많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시간 나는 대로 동기들과 어울리겠다는 다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엔코라인의 이상현 동기는 자그마한 기업이지만 고대가족(본인, 부인, 아들, 며느리, 처제)으로 구성된 자부심으로 현재 경영대학 학생회 간부들에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일부를 후원하는 선행이 있었음을 오성호 사무총장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강남모임의 대표 안병덕 동기는 4월 24일 예정인 강남모임을 장치평 동기의 후원으로 '타이허'에서 저녁모임을 하기로 선언하면서 오늘 참석한 인원들 모두의 참석을 요망하였다. 완전히 술을 끊기로 선언한 장민기 동기는 그간 있었던 취중실수를 기화로 신실한 새로운 삶을 꾸려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여 좌중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학석 회장은 회비적립금이 '0'이 될 때까지 즐기며 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회갑을 맞는 동기들을 기념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선언하면서 자리를 정리하였다.



80 (회장 신창윤 / 총무 이봉기)

정기총회 및 신년회 ...

• 일시 : 2019년 1월 22일(월) 오후 7시 • 장소 : 타이허

작년과 같은 중식당 타이허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2년간 동기회를 이끌어 온 변대현 회장 집행부 후임으로 신임 신창윤 회장, 이종민 감사, 정창식 부회장, 권현준 재무이사, 이봉기 사무총장을 선임하였다. 신임 집행부는 더 많은 동기들의 참석을 목표로 봄철 야유회와 가을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한 골프회, 호산회 및 이수회, 수상회, 고양동기회 등 각종 지역별, 소모임별 활동계획을 홍보하고 동기들 간의 친목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골프회 소식

•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 장소 : 지산CC

지산CC에서 20명이 5개조로 나누어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멋진 시간을 가졌고 우승은 정창식 동기, 준우승은 육향성 동기가 차지하였다.

2018년 남회와 함께 골프회 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 골프모임 일정을 확정하였는데 2019년에는 정기모임과 함께 부부가 같이 참가할 수 있는 비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정기모임은 지산CC에서 4월 16일, 6월 18일, 9월 17일, 11월 19일로 확정하였고 비정기모임은 매월 첫번째 화요일 청평 마이더스밸리CC에서 부부골프와 동기골프를 병행하기로 하여 우정과 애정과 건강을 동시에 누릴 계획을 세웠다.



호산회 소식

호산회는 예년에 비해 많은 동기들의 참석에 힘입어 매월 정기산행을 이어가며 동기들의 건강과 친목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다. 2018년 12월 7일 청계산, 2019년 1월 19일 안산둘레길, 2월 23일 남산둘레길, 3월 9일 아차산, 용마산을 산행하였고 4월에는 12일 ~13일 1박 2일 광주 무등산 산행을 계획하여 지방에 있는 동기들의 참여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매번 모임마다 15여명의 동기들이 참가하는데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선정하여 더 많은 동기들이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81

(회장 김현수 / 사무총장 신동훈)

81동기회 신년회 및 여러 동기 축하연

• 일시 : 2019년 1월 23일(수) 저녁 6시 반 • 장소 : 논현동 취영루 • 40명 참석

새해 신한은행 부행장에서 계열사 사장으로 진급한 허영택 동기, 작년 말 경영대 학장으로 취임한 김재욱 동기, 사학연금 CIO로 재선임된 박대양 동기, 벤처캐피탈 부문대표로 취임한 우동석 동기의 영전을 축하하고, 참석한 동기들의 근황을 듣고, 다 같이 건승하는 한 해를 보내자고 다짐했다.



삼화회 2월모임

•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2시 • 장소 : 산재향 청계광장점 • 13명 참석

새해 처음으로 개최한 삼화회 점심모임에 12명의 동기들이 참석.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으로 있다가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진 동기가 점심식사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멀리 대구에서 온 경북대 교수 허문구 동기, 그동안 계속 바빠 참석이 어려웠던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상진 동기, 노던 트러스트 은행 임원으로 있는 박래형 동기의 근황을 듣고 이광식 동기의 어머니가 조금씩 회복중이라는 소식에 다들 안도했다. 오늘 맛있는 점심식사를 지원한 이상진, 커피를 준비해 준 김윤창 동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팔사랑 정기총회 ...

•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경영 84학번 팔사랑의 2018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동기 기금관련 회계 감사 보고, 1년간 동기회 활동, 신임 회장 선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문상철 동기회장이 윤영원 수석부회장을 추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윤영원 신임 동기회장이 선출되었다. 문상철 회장은 문경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박병성 교우의 사과를 참석자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는데, 사과를 맛본 교우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여 선물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병성 교우가 대금 중 일부를 동기회에 찬조하여 모임 분위기가 더 우애있고 훈훈하였다. 정용태 교우는 동기 밴드에 신문기사를 패러디한 소식까지 올려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에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윤영원 교우는 행사 후 밴드에 인사말과 조직도를 게시하며, 안정 속에



회장 윤영원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2년간 임기를 시작하였다.

팔사랑 북한산 산행 ...

• 일시 : 2018년 3월 16일(토)

경영 84학번 팔사랑회는 2019년 첫 행사인 산행을 하였다. 윤영원 신임회장 출범 이후 팔사랑회의 공식 첫 행사인 이 날 산행은 김홍석 신임 산악회장의 리딩으로 진행되었다. 9시 30분 불광역 옆 장미공원에서 출발한 12명의 동기는 탕춘대능선-향로봉-비봉-사모바위-승가사의 코스 9km를 횡단하여 구기동 탐방센터에 예정된 오후 2시에 정확히 도착하였다. 김홍석 산악회장은 올해 84학번 전체 산악 동기회의 리딩 대장을 맡았는데 코스 선정과 시간 관리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정창우 동기는 고교 모교의 시산제에 참석했다가 식당에 합류하여 팔사랑에 대한 애정을 보여 주었다. 등반하면서 동기들의 동정과 상식에 대해 대화하면서 모처럼 미세먼지가 없이 쾌청한 날씨의 북한산을 즐겼다.



경영88 청계산 산행 ...

동기회장 박진영을 포함한 동기회 운영진의 올해 첫 산행모임이었다. 미세먼지 없이 쾌청한 날 즐겁게 산행을 즐기면서 2019년 88학번 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90학번 D반 동기모임 ...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저녁7시 • 장소 : 여의도 진가

• 참석자 : 최창규, 김유석, 이병용, 정재국, 이상현, 이승희

2018년을 보내면서 90학번 D반 친구들이 여의도에 있는 진가 식당에 모여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90학번 D반 대표인 김유석 동기가 모임을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었다. 고맙다. 유석아



709 회장 한호석(경영74), 총무 구자형(경영74)

경영709 신년모임 ...

• 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 장소 : 교대역 근처 기와집 순두부

신년이어서인지 구정연휴 뒤끝이어서인지 일부 동기회 회장교체와 해외나가신 교수들도 있어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6명이 참석하여 즐겁게 나라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나누며 유태인의 영향력과 조선의 건국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화제로 유익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다. 구자형 총무의 사회와 더불어 한호석 709회장의 인사 및 건배제의로 신년모임이 시작되었고 4월 8일 709모임때는 보다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게끔 책임을 분담하였으며 그날은 72학번에서 모임을 지원할 것으로 정하였다. 1차 모임후 분위기가 좋아 맛있는 와인을 함께 들며 후속모임을 가졌다. 다음 4월모임을 기대하며 헤어졌다.



809 회장 박수근(경영81), 총무 김종훈(무역86)

골프회장 초청대회 ...

•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 장소 :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 • 글쓴이 : 809홍보부장 최윤석(무역89)

809모임(18년도 회장 : 81학번 박수근)은 토요일 이천에 있는 사우스스프링스CC에서 10개 팀 40명의 809 교수들이 참여하여 라운딩을 즐기면서 선배배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개최되었던 이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은 82학번 구승희 교수가 차지하여 꿈에 그리던 빨간 골프백을 선물 받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280m 롱기스트의 영광을 차지한 83학번 권태길 교수의 허리를 이용하는 원 포인트 레슨은 감명 그 자체였다. 이날의 메인상이었던 학번 최저타상, 상금 100만원의 우승 학번은 80학번, 상금 50만원의 준우승학번은 86학번 교수들이 각각 차지했다. 다양한 상품, 상금 등을 후원해주신 회장님 이하 선배배 교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드리며 다음 정기모임은 2019년 1월 17일(목) 신년회로 경영대학 신임 학장 81학번 김재욱 교수의 초대로 경영대학내 안영일 홀에서 하기로 하였다. 또한 활발하게 활동하고 봉사하는 우리 809모임이 12월 6일 "제38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교우상 특별상에 수상자로 선정되어 사상이 있을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도 공유하였다. 809! 809! 우리는 하나다. 고!! 고!! 고!! 의 809 구호를 함께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4기 발대식 개최 ...

• 일시 : 2019년 3월 15(금) 18시 30분 • 장소 : 논현동 취명루
• 차기 회장 : 여용동(경영82) • 차기 사무총장 : 권태우(경영85)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송년모임 ...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 장소 : 여의도 진가(96학번 진영우 교우의 가게)

• 참석자 : 90학번 최창규, 91학번 권동찬, 96학번 진영우, 97학번 이승민, 김영일, 김훈경, 유진, 99학번 이동영, 남광민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909 멤버들이 96학번 진영우가 운영하는 여의도 "진가" 식당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9년 이후 909의 활동이나 909 회원관리 등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2019년에 909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번개모임(6월 15일 행사 준비관련) ...

• 일시 : 2019년 3월 27일(수) 저녁 7시 • 장소 : 한티역 제주몬트락 • 참석자 : 90학번 최창규, 93학번 최길상, 97학번 김영일, 유진, 99학번 김명태, 이동영

97학번 김영일 교우가 회사를 이직한 이후 번개모임을 제안해서 3월 27일 저녁에 6명 정도 909 회원이 번개모임을 가졌다. 1차는 한티역 제주몬트락에서, 2차는 생활맥주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했다. 이 날 모임에서 2019년 6월 15일(토)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를 것인지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단 자녀들이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고려대학교 학교투어를 하면서 학교소개를 하면 자녀들에게 대학입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고려대학교 학교투어 행사로 기획하기로 했다. 중고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909 회원이나, 00학번이하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KUBS Ladies 6주년 기념행사 및 기타활동들 ...

• 일시 : 2018년 11월 16일(목) • 장소 : 역삼 아펠가모

KUBS Ladies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약 백 명의 경영대의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지난 한 해 KUBS Ladies의 활동과 6년간의 발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KUBS Ladies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KUBS Ladies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곧 이어 같은 달 30일, Good Evening Mentoring Program Closing 행사를 통해 한 해간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2018년 KUBS Ladies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2019년 2월 진행된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KUBS Ladies는 예년과 같은 와인 후원행사와 새터 이벤트를 진행한 한편, 새로이 고경08 선배님들과 함께 경영대 주류 후원 행사에 동참하여 경영대 새내기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였다. 현재 KUBS Ladies는 개강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4월 초 예정된 제6회 Good Evening Program의 Opening 행사와 1학기 드림콘서트를 분주히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여교우와 여자 재학생들 간의 결속력 강화 및 재학생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국내 최고의 경영대와 경영대 교우회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연회비 목표 18,000,000원
달성 **78%** 실적 13,950,000원

2018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목표 23,00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87%** 실적 19,950,000원

목표 228,00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81%** 실적 185,330,000원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총 목표 269,000,000원
달성 **81%**
실적 219,230,000원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봄이 오는 소리

김진하(상66, 시인)

빗방울이 수면에
동그란 파문을 그리며 떨어진다

파문에서 도레미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다섯살 어린 아이가
찰방찰방 물장구를 친다

아이의 머리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아 아!
저 아이가 봄이구나

봄이 저만치서
자박 자박 걸어오고 있구나.

근육은 에너지 저장고

황 인 강(상61 / ROTC3기, 수필가)

아침에 깨어나면 침대에서 몸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한다. 거실에서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기도 한다. 시원함을 느낀다. 어떤 동작하기 전이나 집중된 에너지를 써야 할 때 필요한 것이 근육이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충분한 예열을 최고조로 올려놓고 이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아침 수영장에서 특이하게 근육운동을 많이 하는 70대 초반의 건장한 친구를 본다. 그는 6시에 나와 헬스클럽에서 1시간 몸을 단련한다. 온 몸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근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역기를 들어 올리고 하체를 튼튼하기 위해 일어섰다 앉았다하는, 팔 굽히기 운동을 백 번씩 반복한다. 코치의 지도에 따라 정해진 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한다. 헬스운동이 끝나면 수영장으로 이동한다. 체온유지실에서 본 그의 몸통은 꼭 레슬링 선수와 같다.

중고 시절 학교 앞 골목에서 자취를 할 때다. 옆집에 타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의 친구가 저녁이면 골목에서 운동을 한다. 주로 역기를 했다. 나도 그와 함께 역기 들기를 많이 했다. 이제 실버시대에 이르면서, 근육이 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보디빌더의 경우 육질의 특 튀어나온 터질듯 탱탱함을 보게 되는데, 바윗덩어리와 같은 힘을 발휘하면 순간적으로 뽕뽕음치는 근육의 기(技)와 기(氣)를 볼 수 있다. 근육이 없거나 부실하면 지구력과 힘이 부족하여 병에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선 육신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인생 선배들은 말하고 있다.

대법원 도서관장으로 계신 강민구 선생님이 일간지에 올린 글이 생각난다. 생각근육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의 힘을 키워 늘 최고조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생각에도 근육이라는 것이 있어 그 근육을 잘 키워야,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형체도 없고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육신의 근육이라면 훈련을 하여 키울 수 있겠지만, 생각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라는 의문으로 어리둥절했다. 육신의 근육은 평상시 훈련으로 다 저놓은 힘을 발휘할 때 효과적으로 쓴다.

출전한 선수가 상대와 대전할 때 근력을 활용하여 한방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듯이, 생각도 근육을 키워놓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두뇌를 발달시켜 생각의 힘을 높고 깊게 갖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은 불문의 진리다. 나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든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수준으로 알고

지내왔다. 근육질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이 갈수록 스마트해지면서 이전에 했던 일들을 스마트한 기기들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전에는 아이들이 모르거나 의문이 생기면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책을 뒤져 의문을 풀었다.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두들겨 답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갈수록 사유의 깊이가 떨어져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할진대 독서로 스마트폰이 대신 해주는 상황에서, 생각을 키우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독서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을 깊이 함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일으켜 세운다'. 라고 김봉진 독서법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1955년경, 중1학년 때인 것 같다. 마을에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가 계셨다.

85세가 넘으셨다. 몇 번 할머니 집에 놀러가기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많이 하신다는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다. 활발하게 활동은 못하시지만 말씀하시는 표정과 인자하고 웃음 띤 얼굴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손주동무에게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고 하며 책읽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안창호 선생에 관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그 순간 안창호선생에 대하여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었다. 살아가시기도 힘든 춘추이신데, 웃음 띤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이 범상치가 않아 보였다. 1900년대, 일제강점기 암흑시대에 여성으로 어떻게 글을 배웠으며 독서에 열중을 하셨을까. 여성들은 거의가 학교에 가지 못했던 당시였다. 이제 인생 실버세대가 되다보니 독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생각의 근육질을 키우기 위해 독서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을 성싶다. 독서는 누구에게나 생각을 깊게 하고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다. 생각이 미숙하다는 것은 머리를 쓰는 공부와 독서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10%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90%의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가 책에 대해 말했다.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바로 책'이라고 했다. 책 읽기를 멀리해서는 안 되리라. 매일 한 줄이라도 적자생존(쓰는者生存)의 마음으로 읽고 써야 하리라.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책을 읽고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생각근육을 키우는 것이 어떨겠는가. 생각근육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실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리모델링

심재중 (경영70, 시인)

푸른 하늘에서 새처럼 비상하는 자유
사랑으로 바로 잡아가는 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리
너, 활화산이여
우리 마음속에 불을 댕겨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세월 따라 바래버린 누런 종이처럼
힘없이 구겨져 숨어있는 꿈을
깨워주소서
퍼게 하소서
파랗파랗한 저 초원의 푸른 생기를
정수리에 퍼부어
젊음을 노래하고 삶을 고뇌하며
성취해가는 꿈을 꾸게 하소서
그러한 꿈과 불타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온 고단했던 오천 년 장강의 긴 세월
바로 보고
오늘에 되살려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늘을 이고, 백두 태백 준령을 호령하는
기개를 일으켜주시어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다시, 포효하게 하소서

경영대 교우회는 재정건실화를 위한 특별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특별 발전 기금 납입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문의 : 02-922-3762



광고안내

〈호상〉광고 게재는 경영대 교우회 발전을 위한
우리 경영대 교우들만의 자랑스럽고 전통적인 애교심의 실천이며,
우리 경영대 전 교우들은 이를 감사히 생각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호상〉광고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 각 계층에 포진하고 있는 21,00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인
우리 경영대 출신 교우들이 여러분의 훌륭한 시장이 되며, 고객이 될 것입니다!!
〈호상〉광고는 교우님과 교우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인 것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opinion leader
21,000

참여안내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Tel: 02-922-3762 Fax: 02-922-3763 E-mail: kubsa@kubsa.or.kr

▶ 광고비 입금처 **하나은행 391-910009-80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2018년도 회비 · 분담금 납입 집계 (2018. 1. 1 ~ 2018. 12. 31 기준)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500만원>

74학번 정몽원 회장

<500만원>

57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허광수 부회장
67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300만원>

61학번 최오길 자문위원
66학번 박성훈 부회장
69학번 최상영 부회장
허정수 부회장
70학번 구본능 부회장
72학번 구자열 부회장
김 윤 부회장
73학번 구자용 부회장
74학번 송명호 부회장
75학번 안영일 부회장
이웅열 부회장
허경수 부회장
76학번 이 범 부회장
77학번 이만득 부회장
80학번 정몽규 부회장
81학번 박정원 부회장
88학번 최철원 부회장
89학번 정의선 부회장

<200만원>

70학번 나완배 명예회장
97학번 심 건 부회장

<100만원>

65학번 김신경 부회장

배정중 부회장
66학번 황병조 부회장
70학번 이창희 부회장
김광식 부회장
한대곤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황구연 부회장
73학번 정기권 부회장
74학번 강호갑 부회장
도성환 부회장
한호석 부회장
79학번 김 정 부회장
장치평 부회장
80학번 이선용 부회장
81학번 박수근 감 사
김상운 부회장
82학번 여용동 부회장
85학번 황영달 감 사
90학번 송승민 부회장
최창규 부회장
92학번 이성욱 부회장
최강근 부회장

<50만원>

53학번 이윤재 자문위원
55학번 유상옥 자문위원
59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안재학 자문위원
62학번 김병건 자문위원
최부웅 상임이사
63학번 조원영 자문위원
64학번 강동식 상임이사
65학번 김호일 상임이사
66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67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68학번 신준수 상임이사
71학번 이세형 상임이사
72학번 홍형기 상임이사

73학번 신준식 상임이사
75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6학번 이두희 자문위원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손무성 상임이사
79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이동열 상임이사
80학번 김윤정 상임이사
김용현 상임이사
81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홍흥석 상임이사
86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88학번 전찬혁 상임이사
89학번 이동섭 상임이사

<30만원>

70학번 성원규 상임이사
한인호 상임이사
74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이준학 상임이사
78학번 박병규 상임이사
79학번 주철수 상임이사
최수규 상임이사
추경호 상임이사

<20만원>

63학번 이연송 자문위원
전현찬 상임이사
67학번 박우양 자문위원
69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이재선 상임이사
이정주 상임이사
70학번 조한용 상임이사
72학번 최철기 상임이사
74학번 김영승 상임이사
이규범 상임이사
조군환 상임이사
조철래 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최상태	상임이사
82학번	김태진	상임이사
92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58학번	유휘성	
이사		
53학번	이호용	
54학번	김진배	
55학번	김기인	박은양
58학번	함명돈	
59학번	강창석	권상진 김규식 이차욱
60학번	김선희	이웅휘
61학번	김길남	성영일 채규학
62학번	조명암	
63학번	김일환	김형덕 이승철 이영무
64학번	김용운	정제성 유재진 최종한
65학번	이창윤	최병일
66학번	신현옥	양치수 임혁기
67학번	김용동	
68학번	김 인	김찬선 성지환 왕세창
69학번	맹인재	신현웅 임병길 조현룡
70학번	이찬중	
71학번	권관순	이철영 최광균 최윤도
72학번	강순석	강대준 문덕인 이원창
	한충열	
73학번	김순배	김용태 김영식 박구진
	천승희	최종윤 현기춘
74학번	강기철	권순철 김경모 김경식
	김양권	김희종 박창근 손정윤
	유대성	윤영상 임유순 장항덕
	정상호	조형용 한양우 홍석선
	표정호	홍영호
75학번	강태성	김영범 김우진 김창경
	배영환	손상호 정수련 최현진
76학번	김덕만	박원규 배유현 서윤덕
	이원직	장용학 표영수

77학번	이완재	이용모	임동하
78학번	경석현	류한호	박원현 은민수
	조정환	홍민표	
79학번	강현구	김덕년	김상해 김석호
	김진호	민경섭	박진호 방용원
	서동린	정춘돌	
80학번	김경남	배기범	서 정 정덕인
	정백조		
81학번	김원춘	김재범	사택진 박지수
	박창수	유한수	이상표 황 혁
82학번	김성철	장태수	정교순
83학번	송경석		
84학번	김준호	배형근	윤귀만 이용훈
85학번	김은섭	손순진	박영운 이은중
	임 옥	정병욱	조남석
86학번	김기영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89학번	김평국		
92학번	반동현	이윤주	
93학번	염규상		
96학번	주민근		
<일반교우 3만원>			
48학번	황현수		
49학번	고희석		
51학번	전윤자		
52학번	김영섭		
53학번	엄기정	조희석	
54학번	김동진	김정완	박호서 이종은
	이종환	조해연	태호팔 허영만
55학번	권중탁	김강수	김정식 남치현
	박상호	신범현	윤성완 이득주
	이승재		
56학번	김지영	백공용	신명철 안광훈
	윤길림	이기흥	이연상 이인수
	조해균		
57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성균 김의소
	김재곤	김진왕	이병길
58학번	남태현	박성업	박성준 사윤진
	선원규	엄태성	오덕환 유시순

	이종득	이민식	이종철 천정호
	홍종익		
59학번	강해홍	권병용	김무남 김영식
	김종길	김주환	노규채 박형래
	박형문	변홍주	송운한 송창순
	양재관	이기찬	이기홍 이영희
	이윤제	이응두	이창용 임종환
	한순영		
60학번	구자욱	김광평	김만용 김형자
	노수범	박정자	성윤경 신준호
	전용기	정성진	정현구 조대작
	조시연	최덕형	최익호 하정일
	한국언		
61학번	권천중	김소현	김문용 김병만
	김봉암	김순구	김윤창 김재태
	민병훈	박광동	박무용 박엽업
	박윤서	박준관	박진자 박청자
	박화신	성규진	송일웅 안희민
	엄무성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윤태희	이경순 이근창
	이병우	이영자	이 완 이원태
	이재영	이재주	이창근 이재영
	이학주	전규수	조 경 조방래
	조승자	채갑병	채창현 최 흥
	황인강		
62학번	구자웅	김응진	김종순 김종진
	김한중	배영일	백효휘 송기현
	송재인	안기정	유병하 윤재환
	이순영	이인영	전이식 최명현
	최창일	한상욱	
63학번	강기숙	김소부	김종렬 김시균
	김지창	남 훈	박규환 박종일
	오순일	유윤상	윤익순 이재길
	정완영	정익기	최일선 한건수
	황공석		
64학번	고병선	고상진	고종효 김광수
	김덕환	김상규	김선욱 김철주
	김춘식	민선용	서용선 손인교
	신준철	유재현	이경희 이정구
	이항선	이형탁	정철현 조종래

감/사/합/니/다

	허덕행	허석도	홍현목	
65학번	박태인	유병욱	이경찬	이정수
66학번	김명진	김진하	김웅한	박민규
	박용혁	염수열	오창석	이중구
	장철기	전재영	정동준	정연동
	한중희	이판철		
67학번	윤정섭	이계남	이장운	조용건
	최종철	한기석	한상규	
68학번	김관호	김성규	박종성	황철수
69학번	곽태영	김영호	김용기	김은영
	김재찬	박영구	이동진	정영목
	조대승			
70학번	박병천	제 철		
71학번	김기동	박상우	박우우	박장훈
	성찬환	송창열	윤주현	최윤호
72학번	고재영	김각진	김성욱	김영만
	김영식	김중현	류병기	박기상
	박흥국	엄의식	장석산	최원철
	전종환	정우성	최창현	황순기
73학번	권정덕	김교웅	손대정	한진형
	홍문순			
74학번	김성화	김창순	박용운	이윤우
	정원교			
75학번	김우태	박세현		
76학번	신동열	정민진	홍승탁	
77학번	김대철	김정근	이찬근	한광섭
78학번	김석민	김일용	김태완	박수영
	유승식	이병일	이종남	이한구
79학번	강상률	권홍국	김명국	김현중
	류병완	양상문	양원목	유순근
	이종열	정운창	최계수	
80학번	김병조	김태현	박선규	이세호
	지두선	최유성	한종원	
81학번	김동철	김용운	남익우	서봉국
	오주환	정원종		
82학번	김도현	김명형	김지환	박종원
	박준재	심재홍	오창희	윤준섭
	정지호	조명제		
83학번	권기돈	김민호	김보선	백승철
	윤여실	최성근	장수연	허유성

84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민권	김양희
	김용환	김홍석	박광구	윤창섭
	이창구	이해진	정병철	
85학번	강황배	박승하	신강영	신호섭
	심성도	윤상규	전세훈	정평기
	하형민			
86학번	김좌영	류재열	서동욱	황택현
87학번	김종길	이상식	이중제	최문석
88학번	김심덕	유제만	하종문	현철호
89학번	김종민	서계원	이윤석	정운근
90학번	김형기	박상규	장원석	조영환
91학번	조성일			
92학번	김지용	김창영	이현경	
93학번	강준환	김현식	박진홍	조일신
	홍종철			
94학번	김태정	서경덕	유승경	
95학번	이영진	이영환	이희윤	지재홍
96학번	박도현	양진호	이준희	
97학번	김정관	최승일		
98학번	김진환	박경준	이재등	최종민
99학번	신보연	윤창영		
02학번	윤인항			
03학번	오병원	이승환	추창화	
04학번	김형태	이상홍	이찬혁	
05학번	김재영	박종환	송현오	이근호
	이현호			
06학번	이상훈	이 진		
07학번	손상엽	양원모	이정기	허수연
08학번	김선기	배현재	신재호	정근식
	최성우			
09학번	김동완	송명근	박종현	
10학번	권혜진	김도형	김명곤	김성은
	박신영	조근호	조영훈	
11학번	한은경			
12학번	황지민			
13학번	윤형은	이정수	진민영	

〈학번별 분담금〉

62학번	500,000
------	---------

64학번	500,000
66학번	500,000
69학번	1,000,000
70학번	1,000,000
71학번	1,000,000
72학번	1,000,000
73학번	1,000,000
74학번	1,000,000
75학번	1,000,000
76학번	750,000
77학번	1,000,000
78학번	1,000,000
79학번	1,000,000
80학번	1,000,000
81학번	1,000,000
82학번	1,000,000
83학번	1,000,000
84학번	1,000,000
85학번	700,000
86학번	1,000,000
87학번	1,000,000
89학번	1,000,000

〈평생회비 30만원〉

89학번	임춘택
05학번	서동일
09학번	공기윤

〈학번, 성명확인불가〉

장은영
합자회사태성산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2019년도 회비 · 분담금 납입 집계 (2019. 1. 1 ~ 2019. 3. 31 기준)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100만원>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82학번 여용동 부회장

<50만원>

55학번 유상욱 자문위원
67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86학번 강교진 상임이사

<30만원>

74학번 이흥기 상임이사

<20만원>

74학번 조철래 상임이사
74학번 최상태 상임이사
97학번 김영일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70학번 심재중

이사

63학번 이승철 이영무
64학번 정제성
71학번 김기산
74학번 권순철 김경식 김희중 손정윤
유대성 윤명상 임유순 장항덕
조길래 조형용 진영삼 최장현
한양우
76학번 배유현
84학번 이순규

<일반교우 3만원>

55학번 남치현 송재묵
59학번 이광조 이종호
60학번 김동신
62학번 한상욱
63학번 정완영
64학번 홍현묵

65학번 이경찬
66학번 전재영
70학번 제 철
83학번 김정욱
85학번 박종국
91학번 이상수 임수현
97학번 김길분

<학번별 분담금>

62학번 500,000
67학번 500,000
73학번 1,000,000
74학번 1,000,000
77학번 1,000,000
79학번 1,000,000

<평생회비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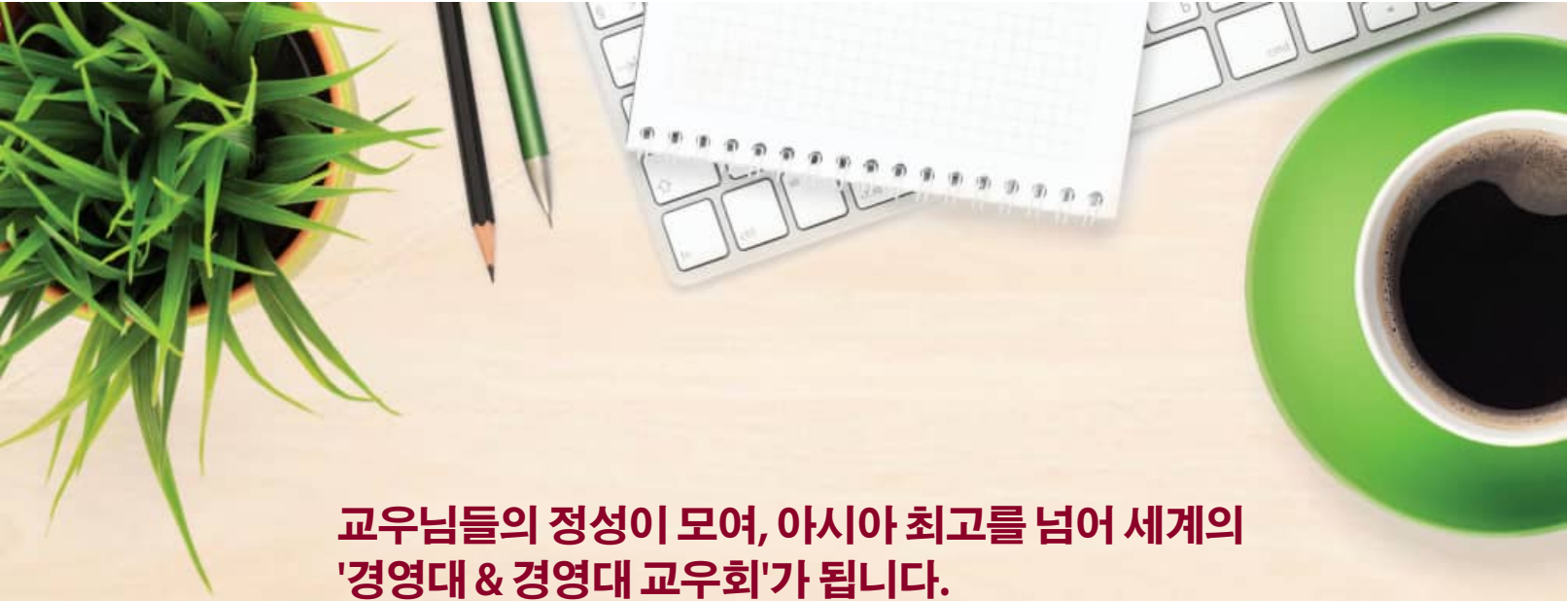
12학번 허종민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교우님들의 정성이 모여,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의 '경영대 & 경영대 교우회'가 됩니다.

회비안내

연회비	일반 교우 매년 1회 30,000원 납부
평생회비	연회비를 대신해 평생 1회 300,000원 납부
임원분담금	교우회 임원 직책에 따른 회비 매년 1회 납부

교우회비는 호상 제작 발송 비용 및 경영대 지원과 교우회 제반 사업에 쓰입니다.

후원금

경영대 교우회는 교우들이 서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사준비, 기념품 제작, 교우DB구축, 홈페이지 운영, 경영대학 지원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02-922-3762)
무통장 입금시는 동명이인이 있으니 성명, 학번을 넣어주시거나 본회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예 : 74홍길동)



임원 위촉

상임
이사

74학번 이흥기

88학번 박진영

이사

74학번 조길래

76학번 양병수 장영린